

ON

따뜻함(溫)을 주는 인하대병원
당신의 안전을 위해 365일 ON



2020 AUTUMN

vol.138

집이 익숙한 우리에게 계절이 건네는 위로

날씨는 선선하고 단풍은 들었지만 마음은 2020년 초, 겨울 언저리에 머무르고 몸은 집을 벗어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올 한 해는 통째로 사라진 것 같아요. 올해 초 뜻하지 않게 마주한 생경한 감염병과 전쟁을 치르느라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계절이 어떻게 오가는지 좀처럼 느끼고 감상할 겨를이 없었지요. 하지만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2020년의 세 번째 계절, 가을이 왔음을 알려네요. 계절은 '여기 안전한 바깥세상이 있다'며 내내 집에 머무르던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 이번 계절만은 아쉽게 보내지 않기로 해요. 아무도 없는 자연 속 아지트에 파묻혀 단풍을 감상하고, 책을 읽고, 바람을 느껴 봐요. 놓치지 말아요. 이 아름다운 가을, 다시 오지 않을 2020년의 계절이잖아요.

뜻밖의 수확을 얻었네

우리가 꾸리는 하루의 그보통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새삼 보통의 가치를 깨달 습니다. 일상에 잠식한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하루 안에서 우리는 또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봄부터 여름 지나 가을이 오기까지 시간은 정직하게 흐르며 이 땅에 선물을 내어놓습니다.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배부른 풍성함이 있습니다. 들판마다 진하게 익어가는 곡식과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은 바라만 보아도 배가 부릅니다. 결실의 계절, 부디 마음까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Vol.138
2020 AUTUMN

CONTENTS

2 찰나의 순간 집이 익숙한 우리에게 계절이 건네는 위로
뜻밖의 수확을 얻었네

SPECIAL THEME 커피 한 잔 할래요

8 SPECIAL THEME 01 커피 맛도 모르면서
10 SPECIAL THEME 02 커피 한 모금을 들이켜기까지
14 SPECIAL THEME 03 이토록 화려한 커피의 변신
18 SPECIAL THEME 04 알면 더 맛있는 커피의 통계학

사람과 건강

22 건강 읽기 역류성 식도염과 스트레타 시술에 대하여
24 인하포커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유방진료부
30 영화와 인생 영화 <마지막 4중주>와 <사인>
34 계절밥상 어느 멋진 가을날, 건강한 은행 요리
36 콧노래 여행 캐나다 오카나간, 테이스티 로드
42 친절한 인하사 친절한 인하사를 소개합니다

인하, 사람

44 인하가 만난 사람 서비스혁신팀
48 인하라운지 포스코건설 해외근로자에게 온라인 의료 상담 제공한다
50 인하이슈 편의성 중심의 새 발열·호흡기 진료소 오픈
52 특특 약물상담 멀미약
53 인하미디어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54 인하뉴스 인하대병원 소식
56 진료안내표

인하대병원보 2020년 가을호(통권 제138호)

발행일 2020년 9월 10일

발행인 김영모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사진·디자인 스튜디오100 (02-511-9369)

인쇄 (주)한강문화

등록번호 인천마01031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로 3가 7-206)

전화 032-890-2114

팩스 032-890-2998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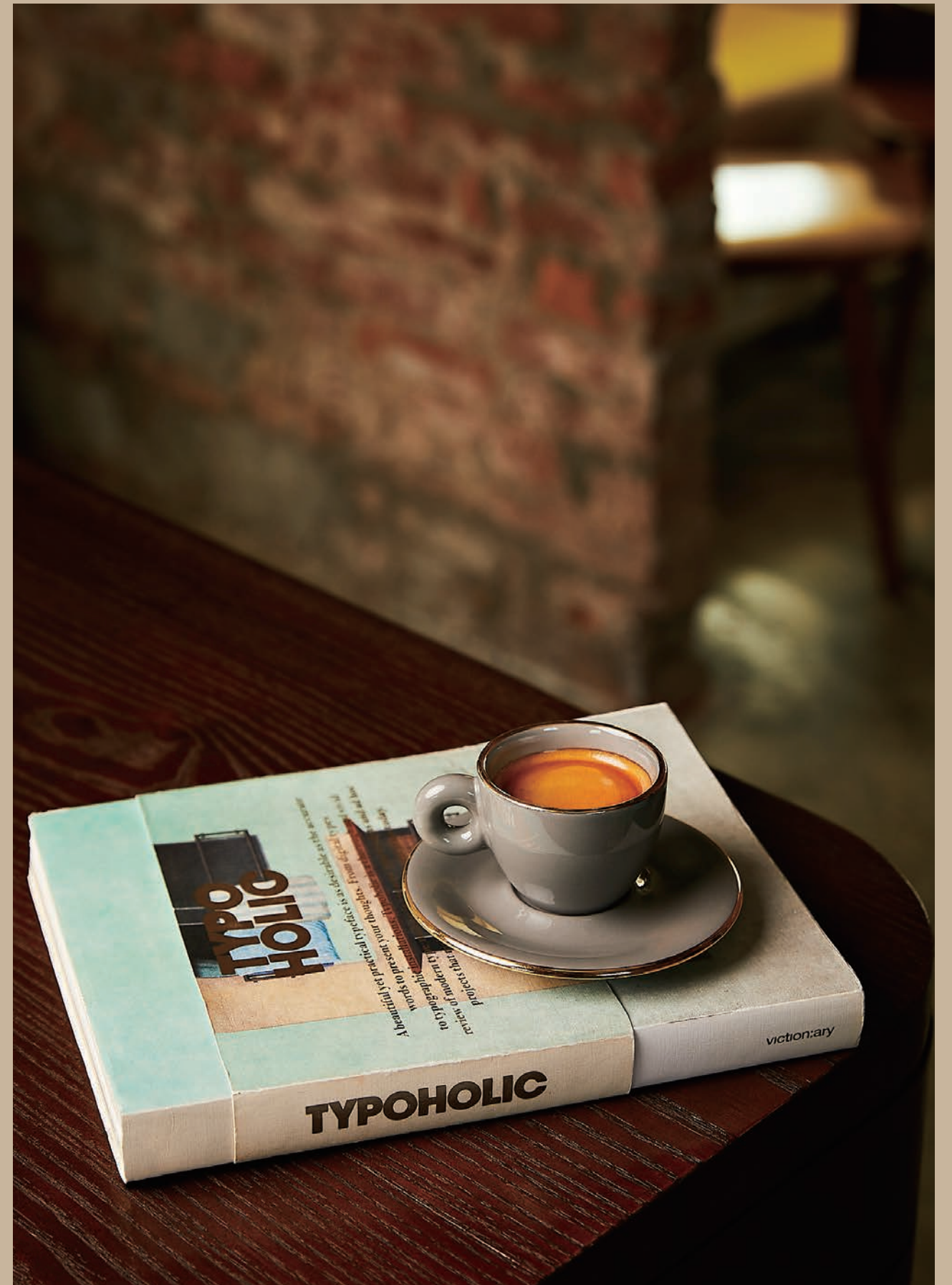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주로 언제 마시세요? 각성이 필요할 때, 휴식이나 충전이 필요할 때, 그도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마시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사람을 만날 때 커피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음료라고 할까요? 곳곳에 다양한 커피전문점이 생기더니 특색 있는 카페를 넘어 이제는 집에 각종 커피도구를 갖추고 홈 카페를 꾸리는 이도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커피는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커피콩으로 내린 마성의 검은 음료, 도대체 커피의 매력은 무엇이기에 온 인류가 이토록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커피에는 널리 알려진 카페인뿐 아니라 에스트로겐, 클로겐산, 디테르펜 등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관상동맥 질환이나 골절, 간암을 예방하는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특한 음료입니다.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효능을 제쳐두고라도 커피의 매력은 단연 '여유' 아닐까 싶어요.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인 만큼 여유 또한 절실합니다. 커피 한 모금 마시는 순간의 여유, 그 한 잔에 담긴 진득한 여백이 커피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커피 브레이크(Coffee Break)라는 표현도 있지 않던가요. 어떤 순간에는 조금 굼뜨고 더더도 괜찮은 나만의 속도가 필요한 법이죠. 지나치게 애쓰지 말고 얼마간은 그냥 놓아두는 것, 이것이 일상을 꾸리는 지혜, 커피 한 잔이 건네는 미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찬 바람 살랑이는 계절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제격입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가을 어느 날,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사색에 잠겨도 좋겠네요. 고단한 일상 속 커피 한 잔은 지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2020년 가을호 <ON>에서는 커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읽는 내내 커피 한 잔을 음미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커피 맛도 모르면서

‘악마같이 검지만 천사같이 순수하고 지옥같이 뜨겁지만 키스처럼 달콤하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인 탈레랑이 커피를 표현한 말이다. 커피를 향한 묘사가 무척 근사하다. 텅달아 그의 절절한 커피 사랑도 짐작이 된다. 하루 50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문학가 발자크가 남긴 커피 예찬은 또 어떤가. “커피가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념들은 위대한 군대처럼 전쟁터 앞으로 나가고 싸움은 벌어진다.” 음, 내게 커피를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도, 아무런 생각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커피에 대해 쓰려고 커피를 내렸다. 벌써 세 번째 캡슐이요, 세 잔째 커피다. 이제 겨우 오전 11시인데, 몇 해 전 들어놓은 커피머신이 여전히 제 기량을 뽐내는 중이다. 특유의 그윽하고 고소한 커피 향이 집 안 가득 퍼지고 작은 컵에는 검은 액체가 담긴다. 검은 액체가 이고 있는 건 ‘크레마(Crema)’라고 어딘가에서 들은 것도 같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키알못(커피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다. 그렇지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다. 그것도 많이, 하루에도 몇 잔씩.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일부러 카페를 찾는 부류의 사람이다. 즐겨 마시는 커피는 아메리카노(Americano). 요즘은 하루 세 잔 이상 마시면 속이 좀 쓰린 것 같아 비교적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철학이 없는 것도 아니다. 커피 맛은 모르더라도 맑이 주룩주룩 흐르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뜨거운 커피만 고집한다. 간혹 뜨거운 날씨에 누군가와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주문할 때 “따뜻한 아메리카노”라고 하면 10명 중 8명은 의아해한다. 내가 뜨거운 커피를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열음이 들어간 커피는 시간이 갈수록 본연의 맛이 연해지니까. 어쩐지 음료수 같아서다. 뭐, 대단한 커피 애호가라도 되는 듯 보이지만 그저 ‘카페인에 중독된 현대인’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지만 나는 커피를 사랑한다. 어느 날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무인도에 간다면 커피는 꼭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할 정도다. 잘 알지 못한다고 사랑하지 말란 법은 없다. 우리가 스타에 열광할 때 스타를 속속들이 다 알고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니까. 커피는 내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이다. 정다운 연인처럼, 또는 가까운 친구처럼.

‘카페인에 중독되었다’는 표현보다 커피에 빠진 이유, 나와 커피에 더 어울리는 표현을 찾는 것도 같다. 커피를 마실 때 누리는 그 여유가 나는 좋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달리는 중에도 커피 한 잔을 들이켜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커피 한 모금의 여유, 여유 한 모금 같은 것 말이다. 커피를 마시는 순간, 삶의 근심과 문제는 잠시 뒤로 물러난다. 또 가까운 누군가와 커피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두런두런 시시콜콜 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도 사랑해 마지않는 일상이다. 함께 밥을 먹을 때는 먹는 행위에 더 열중하지만, 커피를 마실 때는 맞은편에 앉아 소중한 시간을 공유하는 상대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것도 커피가 가진 힘이다.

가을 냄새가 짙어졌다. 무언가에 쉽게 중독되지만,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는 오늘도 커피와 진하게 사랑에 빠져 있다. 돌아보면 올해 어느 때보다 커피와 깊이 교감했지 싶다. 코로나19 시대, 집에 오래오래 머무르면서 네 달에 한 번 정도 주문하던 커피 캡슐을 두 달에 한 번 주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다만 아쉽다. 혼자 마시는 커피보다 함께 마시는 커피가 그림자. 커피 맛도 모르면서 그 커피가 더 맛있는 것만 같다. 단잠에서 깨어나 일하고 먹으며 일상을 꾸리는 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하루 안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며 웃음 짓고, 마음을 주고받는 찰나의 행복 또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다시 찾고 싶다. 이 좋은 가을날, 밖으로 나가 소중한 지인을 만나 맛있는 커피를 함께 마시고 싶다. 오래된 카페테라스에 앉아, 그간 답답했던 속을 풀고, 쪼그라든 몸과 마음을 열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곧 그럴 수 있겠지.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커피 한 모금을 들이켜기까지

커피는 어느새 우리 일상에 일용할 양식이 되었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고, 무시로 카페를 찾아 커피를 마시지만 정작 커피에 대해 잘 모른다. 검붉은 색의 시큼하고 씹새래한 열매는 어떻게 커피가 되어 우리를 황홀하게 할까.

염소들이 먼저 발견한 빨간 열매

인류는 언제 처음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을까? 커피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에티오피아부터 찾아야 한다. 커피를 처음 우연히 발견한 이가 에티오피아의 목동, 칼디(kaldi)라는 설이 있기 때문이다. 염소를 돌보는 일을 했던 칼디는 어느 날 저녁 한 식물의 잎사귀와 빨간 열매를 먹은 염소들이 유독 힘차게 뛰노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호기심에 열매를 직접 먹어보았는데, 피로감이 사라지고 정신이 번쩍 들고 황홀한 느낌이 드는 것을 확인했다. 그 후 칼디가 어떻게 했는지는 의견이 갈린다. 근처에 살던 마을 장로나 사제에게 커피를 전했다고도 하고, 커피의 영향으로 염소들과 함께 춤을 추며 놀았다는 신화적 이야기도 있다.

에멘의 도시 모카(Mokha)의 성벽 밖으로 추방된 오마르(Omar) 덕분에 커피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아라비아의 사제였던 오마르는 어느 날 잘못을 저질러 산으로 추방되었다. 황무지를 방황하며 죽을 직전까지 내몰린 오마르는 우연히 커피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덕에 힘을 얻어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그리고 커피나무 열매를 사람들의 치료에 사용했는데, 사람들은 그가 살아 돌아온 것은 신의 은총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황무지에서 발견한 커피나무 열매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했다. 이후 커피는 모카 주민들의 인기 음료가 되었다. 또한 이슬람 성직자들은 심야기도에서 잠을 쫓기 위해 커피를 각성제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유럽의 커피 부흥과 고종황제의 커피

커피의 어원은 에티오피아어로 '힘'을 뜻하는 'caffa'인데, 아라비아의 'quahweh', 터키의 'kqhve'를 거쳐 프랑스의 'cafe', 영미의 'coffee'로 굳어졌다고 한다.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커피는 아랍의 순례자들을 통해 중동 지역으로 넘어가 고급 음료로 개발됐다. 이후 십자군전쟁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유럽을 정복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커피의 향과 각성 효과에 열광하며 문예부흥과 함께 커피의 부흥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건 구한말이다. 1882년(고종 19년) 외국과 통상협정이 이뤄지면 서다. 이후 이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황제가 커피를 처음 마셨으며, 또 즐겨 마셨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고종황제가 커피를 마시기 전에 대중이 이미 커피를 접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있다. 1884년부터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알렌(Allen)의 저서에는 '궁중에서 어의로서 시종들로부터 홍차와 커피를 대접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 선교사 아펜젤러(Heny G. Appenzeller)의 선교단 보고서에는 1888년 인천에 위치한 대불호텔에서 대중에게 커피를 판매했다고 전해진다.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은 브라질

커피는 현재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1가량이 재배하고 있다. 50개국 이상에서 재배한다. 이들은 대부분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사이 '커피 벨트(Coffee Belt)'에 위치하는 국가이다. 커피의 재배 양식은 국가별, 지역별로 다르다. 한 해에 한 번만 수확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두 번 수확하는 국가가 있고, 연중 내내 수확하는 국가도 있다.

커피는 특히 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다.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이 대표적이다. 흔히 콜롬비아가 커피 최대 생산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은 브라질이다. 19세기 중반부터 세계 최대 생산국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다. 브라질은 커피 생산 지역이 매우 크고 다양하다. 각 지역별 기후, 토양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품종과 품질의 커피를 생산한다. 커피 재배는 거의 기계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동남부 지역에서 재배하는 아라비카종이 브라질 커피의 80%를 차지한다. 고급 상품은 주로 개인 농장에서 재배한다.

격차가 크기는 하지만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2의 커피 생산국은 베트남이다. 2018년과 2019년 봄 수확 기준으로 브라질은 전체 생산량의 32%, 베트남은 19% 정도다. 이 외 10위까지 커피 생산량 순위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에티오피아, 인도, 우간다, 페루, 멕시코 순이다.

씨앗부터 커피가 되기까지

커피는 나무에서 열린다. 커피나무는 꼭두서니(Rubiaceae)과 식물이며, 구체적으로는 코페아(Coffea) 속이다. 우리가 만나는 커피의 시작은 씨앗부터다. 코페아속 식물 중 커피 생산을 위해 경작되는 종은 아라비카종으로 불리는 코페아 아라비카(Coffea Arabica)와 흔히 로부스타종으로 알려진 코페아 카네포라(Coffea Canephora)이다.

커피나무는 대부분 남회귀선과 북회귀선 사이의 지역에서 자라는데, 습하고 축축한 기후와 그늘진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라비카는 바람과 고온에 민감하다. 아라비카종 나무는 파종 후 3~5년이 지나면 꽃을 피우고, 꽃이 진 후 곧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익기까지 9~11개월이 걸린다. 다 익은 열매는 밝은 선홍색을 띠지만 종에 따라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익기도 한다.

좋은 커피의 첫 번째 조건은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해야 더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계나 손으로 수확한 커피 열매는 가공법과 정제 방법에 따라 원두의 질과 방향이 결정된다. 커피 출하까지는 꽤 과정이 길다. 건조 후 탈곡, 품질 평가, 결점도 선별, 샘플 작업, 포장 작업 등을 비로소 마쳐야 수출 길에 오른다.

참고로 커피 시장은 중간 판매상이 유독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커피가 생산되고 가공되는 거의 모든 단계에 상인이나 브로커가 끼어든다. 상인들은 일단 커피를 일정량 사들여 보관했다가 더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 브로커들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다.

커피 마시는 공간, 카페

커피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카페에 가는 일도 일상이 되었다. 카페는 소통, 문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여전히 첫 번째는 커피와 조우하는 공간이요, 커피와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의 공간이다.

카페의 시초는 커피하우스(Coffee House)다. 커피는 1600년대 초 영국에 처음 들어왔고, 1652년 유럽 최초의 커피 하우스가 런던에 문을 열었다. 북적거리는 콘힐(Cone Hill) 지역의 세인트미카엘성당 묘지 근처에서 처음 커피를 팔기 시작한 커피하우스는 카페라기보다 노점상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곳은 상인에서부터 정치인, 로비스트, 지식인, 과학자, 언론인,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차별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또한 정치, 사회, 과학 등 지식이 넘쳐나 '1페니 대학'이라 불리기도 했다고, 영국에서 커피하우스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다음 무명의 한 영국 시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1674년 그는 커피를 일컬어 "아픈 속을 낫게 하고, 천재를 더욱 기민하게 하며, 기억을 돕고, 슬픈 이를 되살리며, 기운을 북돋는, 그러나 취하지 않는, 엄숙하고 건전한 술"이라고 칭송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커피숍은 구한말에 생겼다. 외교 사절 접대의 필요성을 느낀 고종황제가 가까운 독일인 통역사 앙투아네트 손탁 여사(당시 러시아 공사관의 처형)에게 서양식 영빈관 즉 호텔을 지어 주었고, 이곳에 '정동 구락부'라는 커피숍이 만들어졌다.

1923년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인이 서울 명동에 '후타미 다방'을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군에 의해 인스턴트커피가 유입되면서 커피 수요가 점차 늘어났다.



Barista's Tip

- '커피 체리' 커피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커피 체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체리 속 생두를 로스팅하면 원두가 된다.
- 커피를 집에서 내려 마시는 홈카페족이라면 원두를 구입할 때 포장 패키지를 유심히 살펴보자. 농장, 품종, 스크린사이즈, 파인컨 등 스펙을 살펴보면 더 재미있고 맛있게 커피를 마실 수 있다.
- 까다로운 기준과 공정을 거치는 스페셜티 커피 특산지와 품종, 재배법이나 정제법을 대표할 만큼 품질과 가치가 뛰어난 커피를 의미한다. 최근 '스페셜티 커피'를 제공하는 브랜드와 보급 매장도 점점 생겨났으니 특별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찾아보자.



이토록 화려한 커피의 변신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드물고, 커피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물다. 다양한 커피의 종류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카페 메뉴에 열거된 수 많은 커피 메뉴 중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등 늘 마시는 익숙한 커피만 즐긴다. 맛과 개성이 다른 커피의 종류를 알아보고 커피의 세계를 확장해보자.

세계인이 즐기는 이탈리아식 커피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커피를 즐기고 있다.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린 커피는 여러 모습으로 변신하며 세계인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에스프레소' '카페라테' '마키아토' 등 커피 이름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이탈리아어가 제법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커피 원액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더해 연하게 만든 것이 '아메리카노'이고, 따뜻한 우유를 더한 것이 '카페라테', 우유에 우유거품까지 더한 메뉴가 '카푸치노'이다. 이 외에도 변형된 여러 가지 커피 메뉴가 있다. 하지만 모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어야 탄생할 수 있는 메뉴다.

작지만 진한 에스프레소(Espresso)

커피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는 커피를 원액으로 마시고 입 속에 남는 여운을 즐기는 커피다.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에서는 다양한 향미의 균형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다른 방식으로 제조한 커피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바디감과 질감이 특징이다. 보통 25~30ml를 추출하여 전용 에스프레소 잔에 제공한다. 우유 또는 설탕을 함께 내기도 한다. 룱고(Lungo)는 이탈리아어로 '길다'라는 뜻으로, 에스프레

소를 시간상 길게 뽑아 맛을 최대한 추출한 커피다. 에스프레소의 두 배 정도로 추출량을 늘려 보다 씹쓸한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이탈리안 커피를 미국 커피처럼 즐기는 아메리카노(Americano)

아메리카노는 우리나라 커피전문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아닐까. 이탈리안 커피를 미국 커피처럼 즐기는 메뉴다.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더해 연하게 마시는 커피다. '아메리카노'는 이탈리아어의 '미국식'이라는 형용사에서 온 것으로, 이탈리아 커피를 미국식으로 바꾼 걸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커피에 물을 타서 마시는 미군 병사를 보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마시는 커피'라는 뜻에서 '아메리카노'라고 불렀다는 설이 유력하다. 아메리카노에 설탕이나 시럽을 첨가해 즐길 수 있다.

우유와 만난 부드러운 커피, 카페라테(Caffe Latte)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우유를 넣은 메뉴다. 지나치게 강한 커피 맛은 피하면서도, 카페인을 충전하고 싶은 이에게 적합한 메뉴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추출된 에스프레소에 70℃ 정도로 데운 우유를 첨가해 제조한다. 커피

와 우유의 조합은 일찍부터 존재했지만 맛을 위한 커피와 진정한 우유의 조화는 20세기 중반 에스프레소 머신 보급 이후 더 활발해졌다고 전해진다.

라테아트는 커피와 우유의 조화로운 맛을 잘 보여준다. 피쳐에 담긴 스팀밀크를 음료 표면에 부어가며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라테아트는 카페라테뿐 아니라 스팀밀크가 들어가는 모든 에스프레소 음료에 시도할 수 있다.

우유 거품이 조화로운 카푸치노(Cappuccino)

에스프레소, 우유, 우유거품이 조화를 이루는 메뉴다. 에스프레소에 우유와 거품을 낸 우유를 섞는데, 이때 이들 비율이 맞아야 맛있는 카푸치노가 완성된다. 바리스타가 배우는 전통 카푸치노 레시피는 삼등분 법칙이다. 에스프레소, 우유, 우유거품이 1:1:1이다. 처음 카푸치노를 만들어 먹을 때는 계핏가루나 초콜릿 가루를 뿌려 먹지 않았지만 현재는 완성된 카푸치노 위에 기호에 따라 계핏가루나 초콜릿 가루를 뿌려서 즐길 수 있다.

플랫화이트(Flat white)는 에스프레소에 미세한 입자의 스팀 밀크를 혼합하여 만든 커피로, 카페라테나 카푸치노에 비해 맛이 부드럽고 커피향이 진한 편이다.

초콜릿 향이 풍기는 카페모카(Caffe mocha)

에스프레소(Espresso)에 우유, 여기에 초콜릿 시럽이나 초콜릿 가루를 더해 초콜릿 향을 인위적으로 강조한 커피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정통 카페모카 레시피는 카페모카 잔에 초콜릿 15~20ml를 붓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후 스푼을 이용해서 에스프레소와 초콜릿이 잘 섞이도록 젓는다. 이때 데운 우유를 잔의 80%까지 채운다. 완성된 카페모카를 더 부드럽고 달콤하게 즐기 위해 휘핑크림을 올리기도 한다.

커피의 진화는 계속된다

지금까지 알아본 건 커피의 대표 메뉴지만 이 외에도 커피의 종류는 무수하다. 같은 카페라테라도 향이나 시럽에 따라 마키아토, 바닐라 라테 등으로 종류가 나뉜다. 마키아토는 이탈리아어로 '얼룩, 흔적'이라는 뜻이다. 에스프레소의 강렬한 맛을 적나라하게 느끼지 않으면서도 빠르고 날카롭게 퍼지는 에스프레소의 효과를 원하는 이에게 적합한 메뉴다. 소량의 스팀밀크가 에스프레소의 온도를 잡아주고, 우유 속 지방과 당분이 커피의 캐러멜과 초콜릿 향, 바닐라와 견과류 향을 적당히 끌어낸다. 게다가 에스프레소의 바디감과 농밀함도 즐길 수 있는 메뉴다.

블렌디드(Blended)와 프라푸치노(Frappuccino) 등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볼 수 있는 메뉴들이다. 카페마다 명칭만 다를 뿐 이들은 쉽게 말해 얼음을

같이 넣은 커피다. 시럽이 많이 들어가고, 휘핑크림도 올라가기 때문에 달콤한 맛을 자랑한다.

아포가토(Affogato)는 이탈리아어로 '~에 빠진'이라는 뜻이다. 아이스크림 위에 진한 에스프레소(Espresso)를 얹어 내는 디저트다.

보통 커피는 뜨겁지만 우리는 곧잘 차가운 음료로 마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줄여 부르는 '아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의 줄임말로 추운 날씨에도 아이스 음료만 먹는 것을 뜻하는 '얼죽아' 같은 말은 젊은 층에서는 한겨울에도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알아두면 편한 커피 용어

● **생두(Green coffee)** 건조와 가공을 마친 커피 열매의 씨앗. 로스팅 전의 상태를 생두라고 하며 연녹색에서 짙은 초록색까지 산지별로 다양한 색깔을 지닌다.

● **로스팅(Roasting)** 생두에 열을 가하여 볶는 것이다. 원두의 특성을 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보통 생두를 로스터에 넣어 볶고 냉각하는 과정을 거친다.

● **아로마(Aroma)** 커피의 향. 뇌는 혀가 느끼는 맛, 질감, 온도와 코가 느끼는 아로마를 더해 커피 향을 종합적으로 느낀다.

● **크레마(Crema)** 에스프레소 상부에 갈색 빛을 띠는 크림을 말한다.

● **아라비카 / 코페아 아라비카(Arabica / Coffea Arabica)**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커피 품종.

● **AA** 카페에서 메뉴를 고를 때 케냐AA 등 커피의 종류를 보았을 것이다. 여기서 AA는 아프리카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두의 분류 등급을 뜻한다. AA는 스크린 사이즈 17, 18로 가장 큰 생두 등급에 속한다.

● **수프리모(Supremo)** 남미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두의 분류 등급. 슈퍼리아나 AA와 비슷한 등급이다.

● **테루아(Terroir)** 토양, 지형, 기후 등 커피 재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환경적 요소를 말한다.

● **추출(Extraction)** 분쇄 원두의 가용성 성분을 물로 녹여내는 작업이다. 좋은 커피를 만드는 핵심은 커피의 성분을 잘 추출해내는 기술에 있다는 말도 있다. 커피 추출 방식은 사람의 손에 의존하던 터키식 침출법에서 핸드드립, 기계드립, 모카포트, 프렌치 프레스, 사이폰 등 개별적 추출기구가 개발됐고, 이어 레버식, 피스톤식, 스프링식 등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이 등장했다.

● **핸드드립(Hand Drip)** 중력을 이용해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 추출하는 필터식 추출방식.

● **모카포트(Moka pot)** 증기압을 활용한 여과로 진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기구. 모카는 한때 전세계의 커피 교역을 담당하던 예멘의 항구도시 이름이다.



알면 더 맛있는 커피의 통계학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음용되는 음료이자 기호식품이다. 세계는 매년 950만 톤의 커피를 생산하고, 전 세계 인구가 하루 4천 억 잔의 커피를 마신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시시콜콜 재미있는 커피 관련 통계를 모았다.

☪ 커피,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까

한 모금 입에 대면 그윽한 맛과 향이 입 안 가득 퍼진다. 커피의 맛과 향에 취한 우리는 커피를 얼마나 소비할까.

뜨거운 커피 사랑은 계속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유명하다. '커피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커피를 향한 사랑이 뜨겁고, 여전히 식을 줄 모른다. 우리나라 커피 시장 규모는 11조 원을 넘었고 2017년 한 해 동안만 무려 265억 잔의 커피를 마셨다.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은 성인 1인당 연간 353잔(2018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 132잔의 2.7배에 이른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커피 소비량을 가늠할 수 있는 '커피류(원두·생두 등)' 수입량은 지난해 약 16만 8000톤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윽한 커피향이 퍼지는 곳, 카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카페에서 마신 커피 매출액은 2007년 6억 달러, 세계 7위에서 2018년 43억 달러, 세계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커피전문점 수도 매년 늘어,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쉽게 찾기 힘들었지만 2005년부터는 매년 두 배씩 늘어났다. 1999년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열며 국내 시장에 발을 들인 스타벅스는 올 2월 기준 1008곳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참고로 2018년 1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2017년 한 해 아메리카노만 8360만 잔을 팔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식품외식통계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2016년 5만 1551곳에서 2017년 5만 6928곳, 2018년 6만 6231곳 등으로 매년 5000곳 이상 새로 문을 열었다. 종사자 수 역시 같은 기간 15만 2523명에서 19만 7088명으로 증가했고, 매출액은 7조 1310억 원에서 9조 6870억 원으로 뛰었다.

코로나19 보다 강력한 커피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일까. 올해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9월 1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커피(HS코드 0901.11) 수입량은 9만 355톤으로, 전년 동기 8만 5749.8톤보다 5.37% 증가했다. 커피 연간 수입량은 2013년 이래 2018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1~7월 커피 수입량이 9만 톤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지난해 수입량은 역대 최초로 15만 톤을 돌파했는데, 전문가들은 올해 그보다 웃돌 가능성을 전망한다. 홈카페 열풍 역시 코로나19와 맞물리며 더 인기를 끌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올 초 국내 커피머신 시장에서도 온라인 판매 비중이 80%에 육박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약 400번 휘저어 인고의 시간을 거쳐 탄생하는 '달고나 커피' 만들기도 이슈였다. 이는 집에 머무는 오랜 시간을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이었다. BTS(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온라인으로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이 '집콕 챌린지'의 사례로 화제를 모았다.

☉ 커피와 건강의 관계에 대하여

커피 속에는 카페인을 포함해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다. 카페인에 반응하는 정도는 나이와 건강 수준에 따라 개인차가 있고, 커피 섭취 기준 역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야 한다. 커피, 적절하게 마시고 건강을 지키자.

하루 섭취권장량이 있다

커피 속 카페인 많은 이들이 커피를 찾는 이유다. 카페인은 쓴맛이 나는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신경자극물질이다. 카페인은 순간 집중력과 암기력을 향상시키고 단순한 편두통에도 효과를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하루 섭취기준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2.5mg/kg(체중) 이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캔커피 4.8캔, 커피믹스 8.3봉, 캡슐커피 5.4잔, 커피전문점 커피 3.3잔이 하루 섭취권장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커피, 골다공증 위험 감소시킨다

폐경 여성이 하루 1~2잔 커피를 마시면 뼈 건강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골밀도 검사를 받은 폐경 여성들을 대상으로 커피와 골다공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커피를 하루에 1잔 마시면 33%, 2잔 마시면 36%의 골다공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에는 에스트로겐, 클로젠산, 디테르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 하루 3잔 미만의 커피는 골절을 예방하고 뼈를 건강하게 한다.

간 건강에 도움 되는 커피

간 건강이 걱정된다면 커피를 마시자. 커피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꽤 오래된 견해다. 커피가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낮춘다는 것. 커피의 간 보호 효과는 많이 마실수록 커져 하루 4컵 이상 마시면 간 질환 관련 사망률이 70% 이상 낮아졌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호주 오스틴병원 빅토리아 간 이식 유닛(Unit) 사라가드너 박사팀이 2016년 전 세계 194개국에서 간 질환으로 숨진 124만 201명의 하루 커피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조사됐다. 또한 간 전문의와 의과학자들의 모임인 대한간학회는 만성간질환자가 커피를 마시면 간암 발생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진료지침을 2018년 발표했다. 진료지침은 간 전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환자에게 커피 섭취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간학회는 해외의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커피의 간암 억제 효과를 학회의 공식 입장으로 진료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것이다. 커피의 건강 효과는 클로로젠산, 마그네슘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커피의 슬픈 얼굴

커피가 무조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커피가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치아의 색깔이 변하고, 위산이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장 박동이 빠르거나 불규칙한 부정맥 역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발생할 수 있다. 또 카페인은 혈압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사람과 건강

건강한 삶을 꾸리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제안합니다.



역류성식도염과 스트레타 시술에 대하여 당신의 식도는 안녕하십니까?

역류성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 역류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위산 역류와 가슴 쓰림이 대표 증상이다. 약을 먹어도 가슴 쓰림 증상이 계속된다면,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내시경 시술법 스트레타 시술을 고려해보자.



가슴 쓰림 증상이 나타나는
역류성식도염

심모 씨(40)는 수년간 약을 먹어도 지속되는 가슴 쓰림 증상으로 찾아왔다. 그동안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어봤지만 그때만 증상이 호전되고, 약을 끊으면 증상이 재발했다. 가끔은 약을 먹어도 증상이 심해 위내시경도 자주 받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검사 결과 환자는 위산이 심하게 식도로 역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역류성식도염의 최신 치료인 고주파 치료(일명 스트레타)를 받았다. 그 덕분에 증상이 호전되고, 약물을 중단할 수 있었다.

식도는 입으로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까지 전달하는, 우리 몸의 가슴 부위에 위치한 30cm 정도 길이의 통로다. 위로 들어간 음식물은 빙초산만큼 강한 위산에 녹는데 이때 하부식도괄약근은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지 않도록 조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식이나 빨리 먹는 식습관, 또는 식사 후 바로 눕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부식도괄약근의 힘이 약해지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가슴 쓰림을 일으킨다. 이것이 흔히 '역류성식도염'이라고 불리는 질환이다.

스트레타, 위산 역류를 막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

역류성식도염은 매우 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증상만으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한다. 그러나 주된 치료제는 역류된 위산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할 뿐, 실제 식도로 위산이 넘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최근 약물을 복용해도 가슴 쓰림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역류를 막아주는 수술을 시행했을 때 증상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가 임상 학술지에 게재되었다(n engl j med 381:16 nejm.org October 17, 2019). 이 연구는 위산 억제제의 만성 사용으로 인한 여러 의학적,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만성 혹은 난치성 역류성식도염 환자의 치료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위산의 역류를 막는 치료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스트레타'다. 스트레타는 위내시경을 시행하는 내시경실에서 고주파를 전달하는 장치로 약해진 하부식도괄약근을 자극함으로써 근육의 재생을 도와 위산 역류를 막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내시경을 통해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시술로, 점막이 아닌 근육에만 전기 자극을 줘서 근육을 키우는 개념이다.

미국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다. 우리나라에는 2018년에 도입해 여러 대학병원에서 부분적으로 역류성식도염 환자에게 대한 스트레타 치료를 시행해왔다. 최근 인하대병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매하여 환자들이 상시로 시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트레타는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수술이 두려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시술을 받은 환자는 단 몇 시간의 회복 시간을 거쳐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고, 시술에 따른 통증이나 합병증도 적다. 나날이 발전하는 진단법과 치료법을 통해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위장관 질환을 가진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원진 교수는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위장관 파트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며, 주로 식도, 위, 상부 위장관을 담당한다. 또한 소화기내시경학회 및 무흉터내시경수술 연구회 등 관련 학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난치성 가슴 쓰림 외에도 식도 무이완증, 조기 위장관암의 내시경 시술법 등 여러 가지 소화기 질환의 내시경 치료를 연구하고 있다.

한 곳에서 모든 치료가 이루어지는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유방진료부



영상의학과
배민선 교수



외과
임성목 교수



외과
박신영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교수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이진욱 센터장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교수



한미숙
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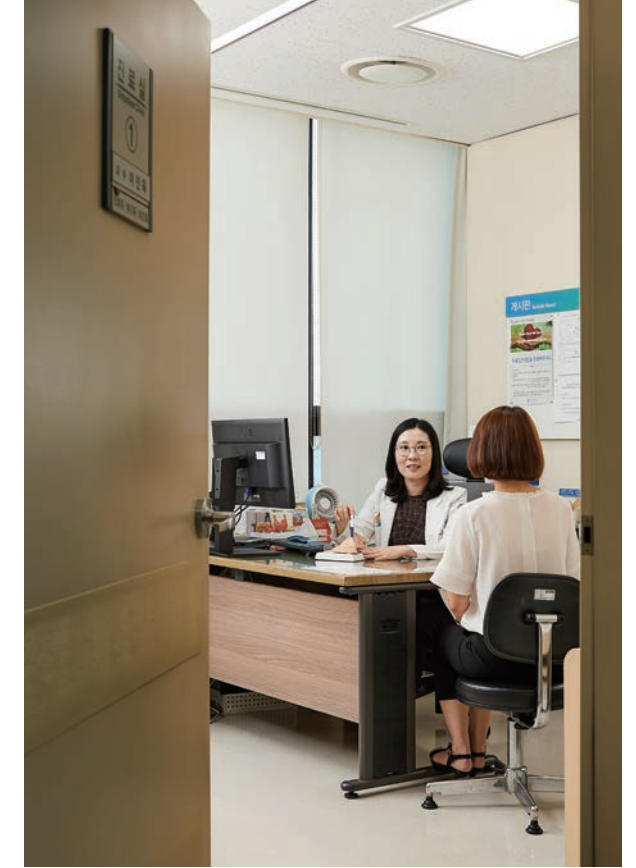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유방진료부에서는 사람의 세 가지 심적(心的)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춘 전인적 치료가 센터 내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유방진료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업하는데, 이들은 유방암 환자의 초기 진단부터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치료 전후 정신건강 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과 환자를 향한 그들의 '가능성'을 믿는다.

유방암 전문의들이 긴밀히 협조하는 유방진료부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여성 암 중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유방암과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곳이다. 이 중 유방암 수술은 연간 300~400건 정도 시행한다.

유방암을 효과적으로 진료하려면 수술뿐 아니라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정확한 진단과 수술 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환자 관리가 필요하다.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유방진료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유방암 관련 전문의들이 긴밀히 협조한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이진욱 센터장 외 유방 병변의 제거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임성묵 교수와 박신영 교수, 수술 후 유방 재건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기세휘 교수, 유방암의 영상 판독 및 진단을 전담하는 영상의학과 배민선 교수, 수술 전후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시행하는 혈액종양내과 이분희 교수, 유방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교수와 이정심 교수, 수술 전후 암환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돕는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교수 등이다. 여기에 환자 가까이에서 환자를 세심하게 챙기는 한미숙 유방암 코디네이터도 함께한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이진욱 센터장은 유방진료부의 장점에 대해 “유방진료부는 유방암 환자의 전인적 치료가 한 센터 내에서 모두 가능하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유방암 환자의 초기 진단부터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 치료 전후 정신건강 관리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모든 노하우를 발휘하며 진심을 다해 치료한다”고 설명한다.



환자별로 적절한 치료법은 따로 있다

유방진료부에서는 유전적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하고 가족의 조기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 BRCA1, BRCA2 등 가족성 유방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수술 후 유방암 재발률이나 항암화학요법의 맞춤 치료를 위하여 Oncotype DX 및 EndoPredict 등 유방암 유전자 패널 검사를 시행하며, 이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결과를 보일 수 있는 약제를 선택하는 정밀의료를 시행한다.

유방암 진단에는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 등 영상 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상 검사는 만져지는 종괴가 있거나 유두분비물, 통증 같은 증상이 있을 때도 시행하지만, 무증상 여성의 검진 목적으로도 시행하기 때문이다. 영상의학과에서 유방영상을 담당하는 배민선 교수는 “만 40세 이상이면 유방 촬영을 권장한다. 특히, 치밀 유방을 가졌거나 유방암에 평균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 여성은 초음파 또는 MRI 검사를 함께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유방암은 유방 촬영에서 미세석회화 병변으로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표준검사인 유방 촬영을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이 필요하면 유방진료부의 외과 임성묵 교수와 박신영 교수가 담당한다. 두 교수는 기존에 널리 시행해 왔던 흉터가 크고 수술 후 모양이 보기 싫은 고식적 유방절제술을 버리고, 수술 후 주변 자가 유방 조직 또는 성형외과적 보형물 등을 활용하여 수술 후 미용 부분까지 고려하는 유방종양 성형수술을 주로 시행한다. 또한 모든 수술에서 종양 절제연에 대해 응급 조직 검사를 시행하면서 암세포가 완전하게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며 수술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이처럼 종양학적으로 완벽한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과 박신영 교수는 외과 수술뿐 아니라 유방 질환의 진단부터 치료, 추적관리 등 전반 분야를 담당한다. 박신영 교수는 같은 유방암 환자라도 환자마다 암의 진행 정도, 암의 위치 등 질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수술 방법도 다르다고 설명한다. “환자의 질환 상태에 따라 수술 전 항암요법 후에 종양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유방 부분절제만으로 충분하기도 하고, 유방 전절제가 필요하여 유방수술 후 재건술을 고려하는 등 필요한 치료가 다르다. 환자별로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다.”

외과 임성묵 교수는 “유방암은 가족력이나 유전학적 소인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



다. 병기 및 종양 타입에 따라 수술적 치료, 항암화학치료, 항호르몬치료, 표적치료, 면역치료 등 여러 치료법이 시행되고 있다. 수술 시 유방 일부분만 절제하는 유방 보존술이 점차 늘고 있으며 종양의 범위가 넓어 전절제 시에도 동시 수술 재건을 통해 수술 후 미용 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행한다”고 설명한다.

의료진의 노력이 깃든 진심

유방진료부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사항은 비교적 젊은 의료진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에너지 넘치고 활동이 왕성한 이들은 좀 더 환자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뿐 아니라 치료에서도 결코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유방암 환자를 진료하는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교수는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개인 교육을 시행하여 궁극증을 덜어드리고 있다. 암 치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라톤에 비유한다. 환자, 가족, 주치의가 함께 뛰는 3인조 경기와 같다. 서로가 힘들 때 끌어주고 잡아주면서 목표를 향해 같이 가는 것이다. 근거 없는 치료법에 흔들리지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조언을 건넨다.

또 의료진은 유방암 환자의 완치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한다.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교수는 암 완치를 위해 활동하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를 비롯한 다양한 종양학회에 소속되어 연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유방암 진단 후 유방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에서 치료를 마치면 치료 효과 판정, 재발과 전이 여부 확인, 부작용 파악 등을 위해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이정심 교수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암 치료 후 5년 이상 재발하지 않고 지나면 의학적으로 완치되었다고 하지만, 유방암은 10년 이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의료진과 상의하여 정기적 검사 및 추적 관찰을 10년 이상 꾸준히 받으시길 바란다. 환자의 치료 의지를 북돋우며 동행자로서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한다.

한미숙 코디네이터는 2010년 8월 인하대병원 여성암센터로 발령 받아 유방암 환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전국에서 열리는 유방암학회, 교육 등을 찾아다니며 배우고 고민했다. 지금은 유방암학회의 간호위원으로 활동하며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그가 가진 노하우를 전수하는 입장이다. 그는 늘 초심을 잊지 않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환자에게 가족같이 다가가는 유방암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다고 한다. “처음에는 간호사와 환자로 만나도 어느 순간 가족이 된다. 수술이라는 파도를 만났을 때, 항암치료라는 큰 산을 넘을 때, 재발이라는 암담한 벽에 부딪혔을 때, 순간순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큰 동굴을 함께 빠져나가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싶다.”

환자 맞춤형 치료를 선도하는 센터

유방암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1위로 점점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발병률 또한 증가하는 선진국형 질환이다. 여성의 삶에서 ‘유방암’이라는 진단은,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큰 사건이다. 유방암 환자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과 합병증에 대해, 수술 후 유방 모양의 변화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고민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암’이라는 사실에 울기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때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교수는 암에 걸린 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여러 연구에서 암환자의 정신건강 관리는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진료 받기를 당부한다. 김 교수는 “암 진단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거부하는 환자가 많다. 암 진단 이후 발생하는 우울, 불안, 불면은 암 때문에 생기는 정상 반응일 수 있지만 때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우울증이나 불면증일 수 있으니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다”고 전한다.

의료진도 매일 반복되는 같은 진단코드를 넣고, 수술 및 시술, 각종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뎠을 수 있다. 하지만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유방진료부는 개개인의 환자에 대해, 공장처럼 수술과 약물 치료에만 전념하는 것을 금기로 삼는다.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병변 치료와 마음 돌봄까지 완벽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힘든 과정을 지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힘을 내고 잘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덕분이다. 앞으로도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유방진료부는 다양한 분야의 열정 가득한 의료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선도하는 센터가 되기 위해 올곧은 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영화 <마지막 4중주>와 <사인> 가장 철학적인 청각예술을 보다

올가을, 단풍과 낙엽을 만끽하면서 감상하기 좋은 영화를 소개한다.

클래식 음악을 주제로 예술가의 인생과 시련을 다룬 <마지막 4중주>와 <사인>인데, 영화 속에 흐르는 베토벤의 후기 현악 사중주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며 클래식 매력에 깊이 빠져보는 것도 즐거울 듯하다.



25년간 세계 최정상 사중주단으로 활동한 뉴욕의 현악 사중주단 '푸가'는 가장 연장자이자 모두의 멘토인 피터가 파킨슨병에 걸리면서 위기에 처한다. 그들은 베토벤의 후기 현악 사중주 14번을 피터의 고별곡으로 정한다. 감독 아론 질버멘은 베토벤 현악 사중주 14번의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이 영화를 만들었다.

<마지막 4중주>, 끝없는 삶의 연속성에 대한 영감

불행한 삶을 비범한 의지로 이겨낸 베토벤의 마지막을 사람들은 9번 교향곡의 영광된 이미지로 기억한다. 80명의 연주자와 100명의 합창단, 그리고 4명의 독창자가 어우러진 실러의 <환희의 송가> 속에 위대한 여정을 완성시키는 영웅적 모습은 감동 그 자체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식으로 끝

'쉬지 말고 연주하라(attacca)'
현악 사중주 14번 각 악장 끝

- 루트비히 판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

나지 않는다.

교향곡 9번의 영광이 지나가고 베토벤을 기다린 것은 어둡고 외로운 나날이다. 그는 죽음을 향해 천천히 침잠해가는 내면의 세계를 현악 사중주를 통해 그려낸다. 베토벤의 16개 현악 사중주 중 이 마지막 3년 동안 쓴 6개 작품(12~16번과 대푸가)을 '후기 사중주'라 부른다. 대 시인 T.S. 엘리엇은 이 작품들에 경도되어 시집 『네 개의 사중주(Four Quartets)』를 쓴다. 그가 보기에 후기 사중주들은 베토벤의 인생의 고뇌가 지나간 후 신과의 화해와 구원의 결실이 었다.

영화 <마지막 4중주>의 원제목은 'A late quartet'이다. '후기 사중주'라는 뜻이다. 이스라엘계 미국 감독 아론 질버멘은 베토벤의 후기 현악 사중주 중 14번의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이 영화를 만들었다. 베토벤의 후기 사중주는 현악 사중주의 형식을 완성시킨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규칙적이고 반듯한 작품들과 달리 서정적이면서도 불균일하고, 악기 간 갈등과 대립이 강렬하다. 이 점 때문에 스트라빈스키는 후기 사중주를 '지극히 현대적이고 지금도 현대적'이라 했다.

베토벤 본인이 가장 아꼈다는 현악 사중주 14번의 구성은 무척 독특하다. 보통 현악 사중주는 4개 악장으로 구성되고 중간에 휴식이 있다. 그런데 14번은 7악장으로 구성되며, 매 악장 끝마다 '쉬지 말고 연주하라(attacca)'고 적혀 있다. 현악기는 연주를 하면 장력이 떨어진다. 장이 끝날 때마다 잠시 쉬며 다시 긴장도를 올리고 서로 음정을 조율해야 하는데 베토벤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불균일과 갈등 속에 쉬지 않고 연주해야 하는 14번의 구조가 질버멘 감독에게 끝없는 삶의 연속성에 대한 영감을 심어준 듯하다. 25년간 세계 최정상 사중주단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뉴욕의 현악 사중주단 '푸가'는 제1 바이올린 다니엘, 제2 바이올린 로버트, 비올라에 로버트의 아내 줄리엣, 그리고 첼로에 세

사람의 멘토이자 팀 리더인 피터로 이루어져 있다. 스승이자 제자, 부부이자 옛 애인, 친구이자 경쟁자로 얽힌 네 명의 멤버는 가장 연장자인 피터가 파킨슨병에 걸리면서 위기를 맞는다. 피터는 25주년 기념 연주회를 마지막으로 은퇴하기로 하고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4번을 고별 연주곡으로 결정한다.

피터의 은퇴가 결정되면서 현악 사중주단에는 균열이 생긴다. 제1 바이올린의 다니엘은 정격 연주에 집착하고 제2 바이올린의 로버트는 자유로운 표현을 주장한다.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에 대한 열등감과 보조자의 한계에 고통스러워한다. 로버트의 아내인 비올라의 줄리엣은 두 바이올린을 중재하는 일에 점점 지쳐간다. 첼로의 피터는 조용히 후계자를 찾아 나선다. 질투와 열등감, 음악 문제와 부부 문제, 그리고 자식 문제까지 얽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현악 사중주단 '푸가'는 깨지기 직전까지 몰린다.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4번의 1악장과 2악장은 푸가로 시작해 대위법적으로 전개된다. 견고하고 건축적인 바흐의 대위법과 달리 자유분방하고 경쾌하며, 서정적으로 네 개의 악기가 느긋하게 이야기를 섞어 나간다. 1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알레그로 모데라토의 3악장이 슬쩍 지나가면 4개의 현악기가 본론에 들어가는 듯한 4악장이 시작된다. 빠른 스케르초의 5악장이 되면 대화는 치열한 격론으로 바뀐다. 5악장의 격론과 불협화음이 끝나면 조용하고 부드러운 1분 30초의 6악장이 프롤로그처럼 지나가고, 소나타 형식의 7악장이 시작된다. 소나타 형식이 그렇듯 모든 것은 하나의 주제로 모이기 시작한다. 작곡가의 이례적인 요청에 따라 심 없이 달려온 주제와 갈등과 협력은 마지막 화려한 코다로 종결된다.

영화는 모든 갈등을 안고 봉합해나간 네 사람의 마지막 고별 공연을 시작한다. 피터는 마지막 7악장에서 더 이상 동료들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연주를 중단한



스승이자 제자, 부부이자 옛 애인, 친구이자 경쟁자로 얽힌 네 명의 멤버는 질투와 열등감, 음악, 부부, 자식의 문제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만, '쉬지 말고 연주하라(attacca)'는 베토벤 현악 사중주 14번의 악장 노트처럼 갈등을 봉합하고 마지막 고별 공연에 이른다.



데이빗은 어려서 음악의 꿈을 포기한 아버지 피터의 기대 속에 피아노를 배우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영국 왕실음악학교로 떠난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3장의 연주 후 정신적 균열로 세상에서 잊힌 10여 년을 보낸 데이빗은 주위의 온정과 아내 길리언의 사랑으로 재기한다. 마음의 평화를 얻은 데이빗은 자신의 재기를 보지 못한 아버지의 무덤을 찾는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 아름답지만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라흐마니노프의 곡에는 198cm의 키에, 활짝 벌리면 두 옥타브를 커버하는 큰 손을 가진 라흐마니노프 본인의 신체 조건이 숨어 있다. 의학적으로 그는 큰 키에 거미같이 길고 극한으로 벌어지는 손가락을 특징으로 하는 마르판증후군 환자로 알려져 있다(영국의학저널 1986).

다. 베토벤의 노트대로 쉽 없이 연주해온 -살아온- 피터는 이제 자신은 쉬어야겠다고 선언하고는 새로운 첼리스트를 소개한 후 조용히 무대를 걸어 나간다. 남은 멤버들은 6악장으로 돌아가 다시 연주를 시작한다.

이 영화에서 파킨슨병으로 첼리스트의 삶을 조용히 정리하는 피터 역은 <디어 헌터>로 1978년 아카데미 조연상을 수상했던 크리스토퍼 월켄이 맡았다. 갈등하는 제2 바이올리니스트역으로는 2006년 <카포테>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필립 세이모어 호프먼이 열연했다.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테가 피터의 죽은 아내 역으로 카메오 출연한다. 실제 영화의 연주는 <브렌타노 퀴텟>이 맡았다. 피터가 고별 무대에서 소개하는 후임 첼리스트는 브렌타노의 한국계 첼리스트 니나 마리아 리다.

<샤인>, 마침내 평화를 찾다

영화 <샤인>은 1986년 호주 영화다. 감독은 다큐멘터리 감독 출신의 스콧 히크다. 불운의 피아니스트 데이빗 헬프가 역할을 열연한 제프리 러쉬는 그 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는다. 어린 데이빗은 음악가의 꿈을 이루지 못한 가난한 유대계 아버지 피터의 기대와 집착 속에 천재 피아니스트 이름을 날린다. 콩쿠르에서 만난 아이작 스톤의 주선으로 미국 음악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지만 아버지 피터의 결사반대로 무산된다. 나치 독일에 부모 형제를 잃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깊은 피터가 가족의 이별을 병적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다시 영국 왕실음악학교의 장학금 제의를 받은 데이빗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뒤로 남기고 떠난다. 왕실음악학교에서는 전설의 세실 파스 교수에게 지도를 받는다. 파스 교수의 지도로 나날이 실력이 향상되어 가던 데이빗은 음악학교 콩쿠르의 레퍼토리로 아버지가 숙원했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에 도전한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은 피아니스트들이 두려워하는 곡이다. 영화에서 데이빗이 말하듯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과 같고, 세실 교수의 말을 빌면 연주 자체가 모험이다. 시간당 음표 수가 많을 뿐 아니라 보통 손가락 길이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음역이 넓다. 세실 교수 역시 "이 크고 무식한 코드를 길들이지 못하면 네가 잡아먹힌다"고 말할 정도로 기교와 극한의 신체적 훈련을 요구하는 곡이다. 라흐마니노프는 1909년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이 곡을 당대의 피아니스트 요제프 호프만에게 헌정했다. 호프만은 이 곡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 같으며 평생 연주를 하지 않았다. 결국 라흐마니노프 본인이 직접 뉴욕 심포니 소사이어티와 초연하고 두 달 후 구스타프 말러의 뉴욕 필하모닉과 협연해 갈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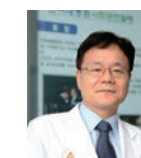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의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는 현과 관악이 소박하고 부드럽게 시작한다. 피아노는 하프처럼 빠르고 부드럽고 힘차다. 때로는 경쟁적으로 때로는 화합을 이루며 오케스트라와 어우러진다. 하이라이트는 알레그로 몰토의 박력에 넘치는 카덴차(cadenza)이다. 2악장 <인터메조 아다지오>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특이인 탁월한 멜로디 감각

이 유감없이 발휘된다. 몽환적인 느낌의 선율 속에 관현악의 서정성과 피아노의 우아함이 어우러진다. 대중적으로 에릭 칼멘이 <all by myself>로 변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가 더 유명하지만 짜임새나 음악적 밀도는 이쪽이 압도적이다. 3악장 <피날레(알라 브레베(2/2박자를 나타낸다))>는 피아노와 관현악의 치열한 경쟁이다. 피아노는 극한의 기교를 들려주며 오케스트라의 장중함 속에 스러지듯 마무리 짓는다. 피아노 협주곡 3번의 연습에 몰두하면서 정신적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던 데이빗은 콩쿠르에서 마지막 악장의 연주를 끝내면서 정신을 잃는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 데이빗은 잊힌 채 10여 년 동안 정신병원을 전전한다. 불완전한 상태로 사회로 복귀하여 주위의 온정 속에 바에서 연주를 하던 데이빗에게 아버지 피터가 찾아온다. 데이빗이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자 피터는 데이빗이 받지 못한 마지막 콩쿠르 메달을 전해주고 떠난다. 데이빗은 15세 연상의 길리언을 만나고 길리언은 그를 피아니스트로 재기시킨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데이빗은 길리언과 함께 자신의 재기를 보지 못한 아버지의 무덤을 찾는다.

<샤인>은 골든 글로브 5개 부문, 호주 아카데미 11개 부문의 상을 수상했다. 아버지 피터 역에는 독일 출신의 노장 아민 뮐러 슈탈이, 교수 세실 파스 역에는 영국의 존 길거드 경이 맡아 관록 있는 연기로 영화의 무게를 실어준다. 영화 전반부에는 리스트, 쇼팽, 라흐마니노프의 명곡이 흘러나온다. 바에서 데이빗의 재능을 다시 일깨워준 곡은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이다. <샤인>에서 가장 알려

진 장면은 데이빗이 영혼의 자유를 찾은 듯 음악을 들으며 트램펄린 위에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모습이다. 이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은 비발디의 세속 칸타타 <세상엔 진실한 평화 없iera(Nulla in mundo pax sincera)>이다. 이 아름다운 모테트는 엔딩 타이틀에서도 흐르며 평화를 찾은 데이빗의 마음을 상징한다.

클래식 음악은 그냥은 쉽게 들리지 않는 것이 묘미다. 공부를 하고 건축물처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거치면 큰 보상이 기다린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포인트와 구조가 새록새록 나타나는 것도 매력이다. 시각예술에서 건축이 가장 철학적인 것처럼 청각예술에서 가장 철학적인 예술은 클래식 음악이다. 이번에 소개한 두 편의 음악은 그 음악적 구조만 가지고 두 편의 영화에 영감을 주었다. 올가을에는 단풍과 낙엽의 풍경 속에서 6편의 베토벤의 후기 현악 사중주와 4편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며 그 매력에 깊이 빠져보는 것도 즐거울 듯하다.



송준호 교수는 인하대병원 신경내과 과장으로 미국과 유럽 교과서에 센터 저술을 한 국제적 투석 치료 분야 전문가이다. 본지에 매회 2편의 주옥같은 영화를 선별해 소개한다.

어느 멋진 가을날, 건강한 은행 요리

코로나19가 일상에 여전히 매복해 있다. 어느 때보다 건강에 좋은 요리를 챙기는 수고가 필요한 시절이다. 잘 익은 은행 냄새는 잠시 잊고 은행이 주는 효능에 주목하자. 은행은 체내 활성 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고, 기침, 가래 완화에 효과적이다. 단단한 껍질 속에 숨어 있는 은행이 가을 제철을 맞았다. 은행으로 즐기는 든든한 한 끼 식사.



은행건강밥

재료(2인 기준) 은행 20알, 새송이버섯 1개, 간 밤 4알, 대추 3개, 소고기(채 썬 것) 150g, 쌀 2컵

부재료 다시마 1장, 소고기 밀간 소금 1t, 참기름 1t, 설탕 1t, 후춧가루 조금

만들기 ① 쌀은 씻어 30분 정도 불린다. ② 새송이버섯은 슬라이스하고, 간 밤은 반으로 자르고, 대추는 씨를 발라 얇게 채를 썰고, 소고기는 밀간한다. ③ 불린 쌀에 물 450g과 다시마를 넣고 센 불에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건지고 중불로 줄여 밥을 섞은 후 고기와 밥을 올리고 뚜껑을 닫는다. ④ 밥물이 잦아들면 은행과 새송이버섯, 대추를 넣고 불을 약하게 줄여 10분 정도 뜸을 들이고 불을 끈다. ⑤ 밥을 골고루 섞어준다.

은행견과류조림

재료(2인 기준) 은행 150g, 호두 130g, 아몬드 130g, 잣 50g

부재료 간장 3t, 맛술 2t, 올리고당 2t, 설탕 1t

만들기 ①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은행을 볶아 껍질을 제거한다. ②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후 견과류와 잣을 따로 볶아준다. ③ 부재료를 섞어 조림장을 만든다. ④ 견과류에 조림장을 넣고 졸이다가 양념이 자작해지면 은행과 잣을 넣어 조금 더 졸인다.





캐나다 오키나간, 테이스티 로드

밭음부터 생소한 오키나간은 캐나다인 사이에서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미식 도시로 유명하다. 호숫가를 따라 들어선 드넓은 포도원과 과수원 옆엔 갓 수확한 제철 식재료로 수준 높은 다이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들이 즐비하다. 젓과 꿀이 흐르는 미식가의 에덴에서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는 법.

캐나다의 테이스티 트레일, 오키나간

봄부터 부지런히 뿌리고 키운 땅의 소산을 거두는 계절엔 맛있는 음식과 달콤한 술로 하루를 채우는 여행이 더 간절해진다. 어느 때보다 '떠남'을 버리는 마음이 더 짙은 나날, 잠시 멈춤이 끝나면 곧 여행을 기억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의 다음 행선지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British Columbia에 위치한 오키나간 Okanagan을 소개한다. 아프리카의 어느 소도시라고 해도 믿을 만큼 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이곳은 캐나다인 사이에선 꽤 유명한 지역이다. 온타리오주 Ontario와 함께 캐나다의 2대 와인 산지로 약 4000헥타르의 대지 위에 포도밭과 와이너리가 드넓게 펼쳐져 있다.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밴쿠버 Vancouver에서 자동차로 4시간 정도 달리면 닿는다. 밴쿠버 사람들의 주말 여행지, '잘 먹는 일'이 삶의 동력인 전 세계의 미식가와 술꾼들이 사랑하는 휴양지로 이름 높다. 오키나간 앞에 '테이스티 트레일 Tasty Trail'이 붙는 건 이곳에 와이너리뿐 아니라 사과, 복숭아, 체리, 베리가 주렁주렁 열린 과일 농장, 그 사이마다 로컬 레스토랑이 준비하기 때문이다. 길이가 무려 153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 오키나간 레이크 Okanagan Lake를 따라 달리며 할 일이란 마음껏 먹고 마시며 행복에 취하는 일뿐이다.

- 1 오키나간의 비옥한 포도원.
- 2 피라미드 구조의 건축물 안에서 와인을 숙성시키는 서머힐 피라미드 오가닉 와이너리의 포도밭.
- 3 와이너리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선 신선한 와인과 잘 어울리는 페어링을 경험할 수 있다.

여행작가 류진은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더트래블러」, 패션 매거진 「코스모폴리탄」 등에서 일하며 42개국 200여 개 도시를 여행했다. 유행의 흐름을 붙잡아 소개하는 일을 하다가 지치면 야생의 대자연으로 도망친다. 자연과 도시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사는 삶을 글로 쓴다.





4 와인 한 잔과 함께 선셋을 즐기며 산책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머힐 와이너리.

5 와이너리에서 포도원과 호수, 산을 바라보며 낭만적인 결혼식을 올릴 수도 있다.



5

달콤하고 차가운 와인의 땅

오카나간의 와인 히스토리는 18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도 켈로우나Kelowna에 정착해 교회를 세운 프랑스인 목사 샤를 팬 도시가 성찬용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포도를 재배한 것이 첫 시작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규모와 범위의 팽창이 가팔라졌다. 1976년 독일의 유명한 와인 메이커 헬무트 베커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리즐링, 피노 블랑, 피노 그리 등 다양한 품종이 대중화됐다.

오카나간 와인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맛은 자연의 소산이다. 지리적 위치부터 특별하다. 위도 50도로, 전통적이며 수준 높은 와인을 생산하는 프랑스의 부르고뉴Bourgogne, 샹파뉴 Champagne, 북부 론Northern Rhone, 독일의 라인가우 Rheingau와 같은 위도에 걸쳐 있다. 테루아도 일조한다. 미기후가 발달해 포도 알이 달고 단단하게 익는다. 더운 계절엔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하고 강수량은 부족하며 일교차가 매우 커서 열매의 당도가 높다. 나파 밸리Napa Valley가 있는 캘리포니아보다 일조 시간이 더 긴 것도 포도의 맛과 질이 높은 이유다.

현지인들에게 '오카나간에선 어떤 와인을 마셔야 하나'고 물으면 주로 멜로Merlot, 카베르네 쇼비뇽, 피노누아, 샤르도네이를 꼽는다. 한쪽에선 독일산 품종인 리즐링, 바쿠스, 오펜슈타인을 꼽아 봐야 한다고 권한다. '하나'만 골라 달라고 했을 땐 '아이스 와인'으로 입을 모은다.

1978년, 캐나다 최초로 상업용 아이스 와인을 생산한 피치랜드 Peachland를 품은 도시답게 수준 높은 아이스 와인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와인 평론가 닐 베케트는 오카나간의 '이니스 킬린 오카나간 벨리 비달 아이스 와인'에 "강렬한 당도와 사과, 살구, 설탕에 절인 레몬의 상큼한 아로마, 윤기가 흐르는 크림하듯 텍스처"라는 찬사를 남기며 '죽기 전에 꼭 마셔야 할 와인'으로 꼽았다.

약 200여 곳(이 숫자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분분하다. 소규모 와이너리, 새로 생기는 와이너리가 워낙 많은 까닭에 300여 곳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다)의 와이너리 중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숫자를 지표로 삼자. 휴가철엔 하루 1000여 명 이상의 방문객이 들락거리는 미션 힐 패밀리 에스테이트 와이너리Mission Hill Family Estate Winery는 곳곳에 예술품이 세워진 근사한 정원에서 오카나간 호수와 포도밭을 조망하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데칸터 월드 와인 어워즈에서 지난해 '세계 최고의 피노누아'로 선정된 미션힐의 '마틴스 레인Martin's Lane 2011'은 이곳에 방문했다면 꼭 챙겨야 할 '기념품'이다. 모험적인 와인을 즐긴다면 서머힐 피라미드 오가닉Summerhill Pyramid Organic 와이너리에서 신선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이름 그대로 '피라미드' 안에서 와인을 숙성시킨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숙성시킨 와인과 피라미드에서 마지막 숙성 과정을 거친 와인을 비교하며 맛볼 수 있다. 100%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하는 포도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이 가장 유명하다.



6



6 피치랜드엔 과일 따기, 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이 많다.

7 오카나간에선 과수원도 근사한 여행지가 된다.

8 오카나간 레이크, 수영, 햇빛 샤워 등을 즐기는 밴쿠버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8



주렁주렁 과일밭 모험

오카나간에서 '과일'이 여행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 둘러보는 곳마다 주렁주렁 열린 열매들, 진동하는 단내와 탐스러운 자태에 눈과 코가 먼저 즐거웠다. 그 신선한 과일들은 일부러 찾아 헤매지 않아도 쉽게 맛볼 수 있다. 농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루트 스탠드fruit stand가 오카나간 벨리 로드에서 즐기기에 딱이다. 러스틱 루츠 와이너리&하커스 오가닉스Rustic Roots Winery&Harkers Organics는 켈로우나 근교, 사과로 유명한 카우스톤Cawston 2238번 도로에서 만난 과일 가게. 하커스 패밀리가 6대째 과수원과 와이너리를 이어가고 있는 곳으로 복숭아, 사과, 체리를 비롯해 과실주, 오카나간 파인 다이닝이 탐내는 싱싱한 유기농 채소를 생산한다. 하커스 패밀리의 5대 주인 부르스 하커스는 오카나간을 찾는 이들에게 캐나다 안에서도 '특상품'으로 꼽히는 '그라임스 골든' 사과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먹는 과일로 묘사된 '엠브로시아 중' 사과를 꼭 맛보기를 권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캐나다의 과일 바구니(오카나간의 또 다른 별명이다)' 안에 들어가고 싶다면 '유 픽 U-Pick' 피켓을 꽂아둔 농장을 찾을 것. 수확철에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캐나다 농장이나 과수원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일정 시간 동안 농장의 과일을 '원하는 만큼, 능력껏, 마음껏' 골라 딸 수 있다. 코버트 팜 Covert Farms은 '유 픽'과 와인 테이스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농장이다. 약 60년간 과일과 채소, 와인을 생산해온 이곳은 오카나간뿐 아니라 캐나다 서부 전역에 잘 알려진 이름. BC주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선 간판과 메뉴판 아래 '코버트 팜의 채소를 사용합니다'라는 글귀로 식재료를 향한 자신들의 까다로운 기준과 열정을 드러낸다. 코버트 팜에서 운영하는 유 픽에서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은 사과, 머스크멜론, 토마토, 딸기, 레드베리와 블랙베리 등이다. 물론 시기에 따라 수확 가능한 종류가 다르다. 내가 찾은 시기엔 우리나라에선 좀처럼 '갓 탄' 걸 즐기기 어려운 베리 녀름이 풍작이었다. 바구니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입 주변이 거뭇해진 것도 모른 채 블랙베리를 따고 먹고 담았다. 그러니까 오카나간에서 할 일이란 '취하는 일'뿐이다. 하루는 와인에, 하루는 달콤한 과일에. 이곳이 옆 도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탄 베리로 과일주도 담그고 잼도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오카나간에 머무는 내내 행복한 식탐에 젖어 영혼까지 포동포동해진 시간을 보냈다.

- 9 꽃, 과일 등을 마음껏 딸 수 있는 농장.
- 10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농부.
- 11 하커스 오가닉스 팜의 상징, 빨간 트럭.
- 12 프루츠 스탠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싱싱한 채소와 과일.
- 13 오카나간의 특산물, 베리.
- 14 갓 탄 베리와 체리로 만든 에피타이저.
- 15 와인에 곁들이는 안주도 모두 로컬 프로덕트로 즐길 수 있다.
- 16 제철, 로컬 식재료를 만든 로스트 치킨.



친절한 인하사를 소개합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에게 칭찬 받은 직원 대상으로 매월 '칭찬 직원'을 선정합니다. 5월과 6월 칭찬 직원으로 선정된 <친절한 인하사>을 소개합니다(소속은 수상 시점 기준).

05월



박은혜(입원간호4팀 - 서9병동)

칭찬합니다! 미소가 예쁜 만큼 일도 잘합니다. 상냥한 미소로 환자 곁으로 다가가 자상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신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와의 라포(관계, Rapport) 형성은 바쁜 업무 가운데 든든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06월



이영란(외래간호팀-암센터)

칭찬합니다! 정신없는 상황, 바쁜 가운데서도 늘 웃으면서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와 닿는 친절함과 배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든 치료과정에도 제 친절을 따뜻하게 받아주신 환자들이 생각납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마음을 보듬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친절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6월



장윤정(입원간호3팀 - 동12병동)

칭찬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로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대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과 환자 여러분 덕분에 6월의 친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와 소통하며 변함없는 친절간호사, 미소를 잃지 않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좋은 상,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06월



입원간호2팀(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칭찬합니다! 상담하는 직원 한 분 한 분이 어찌나 친절인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 좋은 동반자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말기 암환자의 영적 돌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호스피스 팀원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말기 암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더욱 세심히 돌보고, 사별 가족의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있는 호스피스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사람

당신의 건강을 귀하게

인하대병원은 산처럼 우직하게 같은 자리를 지키며
당신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하대병원 서비스혁신팀

‘환자 중심문화’ 실현을 위한 진심



손영신 과장

김철우 실장

김미란 팀장

박경환 대리

인하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환자경험평가에서 올해로 2회째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관련 업무는 서비스혁신팀에서 담당한다. 김미란 팀장, 손영신 과장, 박경환 대리로 구성된 서비스혁신팀은 김철우 의료혁신실장의 지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서비스혁신팀 사람들을 만났다.

환자경험평가 결과, 2회째 얻은 상위권 성적

인하대병원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최상의 진료, 연구, 교육을 통해 인간존중, 공존공영, 고객 만족을 실천한다’는 미션(MISSION) 아래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관련 업무는 의료혁신실 소속 서비스혁신팀에서 담당한다. 서비스혁신팀의 주요 업무는 고객 만족도 조사 및 결과 기반 개선, ‘의료서비스디자인’ 운영, CS교육, 칭찬문화 및 직원참여 캠페인 등 긍정적인 조직 문화 활성화, 환자경험평가 주관 등이다.

인하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환자경험평가에서 올해로 2회째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2017년 시행한 제1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전국 2위, 2019년 시행한 제2차에서는 전국 6위의 최우수 결과를 획득했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2017년 제1차 환자경험평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2016년도에는 직원들에게 ‘환자 경험’의 의미, ‘환자 중심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식시키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한다. 의료혁신실 김철우 실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평가 중 ‘환자들이 참여한 결과’만으로 지표 결과 값을 내는 평가는 처음이었다. 오로지 이 평가 하나였기 때문에 어느 관리자는 ‘JCI 인증보다 무서운 것이 왔다’고 표현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두 번째 평가에서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 처음 준비할 때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평가 결과에 연연했다면, 지금은 환자경험평가의 진정한 목표인 ‘환자 중심문화’ 실현을 위해 환자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한 서비스혁신팀의 노력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하대병원 서비스혁신팀의 활동은 자랑할 만하다. 먼저 2014년도 ‘고객서비스’ 질 향상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탑(Top) 5 병원(일부)을 비롯해 고객서비스 우수병원을 벤치마킹 한 후 다각도의 활동을 병원 내에 적합하게 적용했다. 의료서비스디자인과 같은 CS계의 최신 트렌드 적용 등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짧은 기간에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현재 타병원에서 벤치마킹을 의뢰해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CS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협력병원 교육 등)하고 있다.

또 인하대병원의 NPS(순수고객추천지수)도 눈여겨볼 만하다. NPS는 추천 비율-비추천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30%를 넘기기 어렵고,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기업들의 평균 NPS는 5~10% 수준에 그친다. 김철우 실장은 “일반적으로 NPS는 고객만족 향상으로 높아진다. 이는 충성고객을 및 초진환자들이 향상되고 민원환자율은 감소되는 등 선순환의 구조를 이룬다. 인하대병원의 NPS는 38.6%~43.0%이다. 애플이나 코스트코, 사우스웨스트 등 지난 10여 년 이상 놀라운 성장률을 보인 기업들의 NPS가 50% 안팎 수준이다. 이를 통해 인하대병원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비스혁신팀의 자랑은 하나 더 있다. 타병원에서는 CS교육, 의료서비스디자인, 고객만족도 조사, CS전문인력 양성, 환자경험평가 대비 등을 대부분 전문 외주업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다. 하지만 인하대병원 서비스혁신팀은 스스로 학습하여 자체 운영함으로써 지불비용 등 병원수익에도 긍정적 결과를 미치고 있다.

의료혁신실 김철우 실장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비스혁신팀 김미란 팀장
일기일회(一期一會)의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서비스혁신팀 손영신 과장
진정한 존중과 공감,
따뜻한 말과 손길로



서비스혁신팀 박경환 대리
작은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이자 의료혁신실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료혁신실은 서비스혁신팀, 가치혁신팀, 적정진료팀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그대로 '혁신'을 주도하는 부서입니다. 혁신을 이루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지만, 인하대병원을 찾는 환자와 직원들을 위하여 서비스혁신팀의 혁신 과정은 '형식적 뻔한 NO, 창의적 Fun(즐거움) YES, 자발적 참여 및 자유로운 소통, 현장 중심, 실천 가능한, 작은 일도 소중히 그리고 신속하게'를 바탕으로 합니다. 인하대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내 부모님, 형제, 자매'라는 생각으로 진정성 있는 고객서비스를 경험하게 해드리고자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혁신팀은 '성공하려면 남보다 반걸음 앞서야 한다'는 '영선반보(領先半歩)'를 새기면서 반걸음만 앞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반걸음 앞에서 환자, 모든 직원과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환자실에서 20여년 근무했고, 5년간 CS 사내강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부서를 운영하고, 업무를 하는데 큰 자산이 됩니다. 특히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을 간호할 때 마음에 새기고 있던 '한 사람을 전인적인 존재로 보면 된다.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구절은 고객의 요구사항 중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고객을 온전히 '사람'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혁신은 특정부서나 일부의 인원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조직구성원들이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서의 수고와 노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이룰 때가 많기 때문에 늘 '공은 남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기일회(一期一會)의 마음, 즉 매번 상대에게 봉사할 기회가 평생 단 한 번 뿐이라고 생각하며 고객들을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자경험평가의 평가 담당자로서 평가 계획과 실행, 만족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CS와 관련된 직원 교육 및 의사직 지표 관리, 관련 행사나 캠페인 등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이번에 환자경험평가 결과가 좋아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아서가 아닌, 많은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좋은 경험을 한다는 피드백이니까요. 직원들도 자랑스러웠는데, 역시 무ূল한 감동이었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가 무척 중요한 요즘입니다. 환자의 만족도가 병원 평가에 반영되면서 직원들이 평가와 관련해 업무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좋은 직원경험이 좋은 환자경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임상현장에서 느끼는 직원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더욱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매뉴얼화된 친절과 만족이 아닌 진정한 존중과 공감, 따뜻한 말과 손길로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인하대병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혁신팀에서는 고객만족도조사, 칭찬문화활성화, CS캠페인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업무에서는 상호존중과 협조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병원은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기에 결코 혼자 잘해서는 업무를 잘 해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서비스혁신과 조직문화 활성화는 한 부서의 힘만으로는 이루기 힘든 과제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도와야 합니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병원마다 평준화되면서 결국 임직원이 함께 이룬 진정성 있는 '환자중심문화'는 의료기관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혁신팀이 뿌린 작은 씨앗들이 인하대병원 곳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스코건설 해외근로자에게 온라인 의료 상담 제공한다

인하대병원은 포스코건설과 '해외근로자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지에서 진료의 어려움을 겪던 파견 근로자들은 국내 의료진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건강한 삶을 꾸릴 수 있게 됐다.

포스코건설과 업무협약(MOU) 체결

인하대병원이 포스코건설의 해외파견 근로자들을 위한 온라인 의료상담에 나선다. 해외 근로자들은 현지에서 겪는 진료 어려움을 한시름 덜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포스코건설과 '해외근로자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모 의료원장과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실제 진료상황을 가정 한 시연회를 진행했다. 시연 대상자는 포스코건설의 방글라데시 현장 근로자 최비용 차장(45세)이다. 최비용 차장은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 김아름 센터장과 약 15분간 상담 시연을 실시했다. 그는 평소 고혈압이 있어 방글라데시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최비용 차장은 "방글라데시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병원에 가려면 언어 문제와 교통 등 제약이 많다"며 "시연이지만 인하대병원 의료진과 소통해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앞으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듯하다"고 기대했다.

근로자들이 건강한 삶을 꾸릴 수 있기를

인하대병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정한 '산업융합 민간 규제 샌드박스 1호 안건' 타이틀을 얻었다. 재외국민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7일 서비스를 정식으로 오픈하여 운영 중이며, 병원과 (주)હે셀, 한진정보통신(주)가 공동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한다.

그간 인하대병원과 포스코건설은 해외 파견 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 건강에 관한 신체적·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협약을 준비해왔다. 포스코건설은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17개국에 213명의 근로자들을 해외파견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파견 근로자들이 국내 의료진과 소통하는 길이 열려 건강문제에 대한 고충 해소에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김영모 의료원장은 "해외에 계신 근로자들께서 현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과정이 수월치 않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왔다"며 "의료기관으로서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건강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환자 편의성 중심

새 발열·호흡기 진료소 오픈

인하대병원이 환자 편의성 중심의 새 발열·호흡기 진료소를 오픈했다. 발열·호흡기 진료소는 환자진료 컨테이너와 성인·소아 환자를 분리한 환자대기용 컨테이너 2개로 구성된다. 새 진료소의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동선을 일원화한 새 발열·호흡기 진료소

인하대병원이 발열·호흡기 질환자들의 편의와 감염증 확산 차단 강화를 목적으로 발열·호흡기 진료소를 이전했다. 발열·호흡기 진료소는 환자진료 컨테이너 1개와 성인·소아 환자를 분리한 환자대기용 컨테이너 2개를 운영한다. 진료 컨테이너에는 2개의

성인진료실과 1개의 소아진료실, X선 촬영실, 채담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새 진료소의 가장 큰 특징은 동선의 일원화다. 원무 접수 후 X선 촬영과 수납까지 진료소 내에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진료소는 촬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분리 동선을 이용했다. 특히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는 시설 문제로 진료가 제한되어 응급실까지 재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2차 대유행 등 환자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기시설도 개선했다. 환절기 및 동절기의 호흡기질환 유행 시기에 환자 증가를 대비하여 진료구역을 원외로 분리하고, 응급실 선별진료소와 같은 방향에 두어 환자 이동 동선을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위험 노출력이 있는 선별진료 환자의 진료 및 대기공간을 구분하여 진료할 수 있다.

기상변화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시설 안에 음압 및 냉·난방 설비도 설치했다. 내원객들이 실외에서 대기할 때 차양 아래에서 햇빛과 눈, 비 등을 피할 수 있다. 발열·호흡기 진료소의 정규 외래시간은 평일 8시 30분부터 16시(12~13시 점심시간)까지며 환자가 급증할 경우, 정규외래 운영시간 이외에는 응급실 선별진료소로 확대 운영하는 체제로 변경될 수 있다.



똑똑하게 챙기는 약 사용 설명서 ⑨ 멀미약

먼 거리를 여행할 때 차나 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어질어질 머리가 아프고 울렁울렁 속이 메스꺼운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멀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멀미약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멀미는 왜 발생하나?

멀미란 우리 몸의 여러 감각기관들이 느낀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두통, 어지러움, 오심 같은 증상을 말합니다. 주로 자동차, 배, 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눈으로 감지된 움직임이 전정기관(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내이에 위치하며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평형기관)이 감지한 것과 맞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멀미약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멀미약에 사용되는 약물은 주로 히스타민의 작용을 차단하는 항히스타민제와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차단하는 부교감신경 억제제인 스크폴라민입니다. 멀미약은 구토가 일어난 후 사용하는 것보다 오심, 구토가 일어나기 전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밖에 멀미약의 부작용인 졸음을 억제하는 카페인, 구토 억제작용이 있는 피리독신(비타민B6)과 니코틴아미드(비타민B3) 성분이 복합된 제품도 있습니다.

멀미약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멀미약을 복용하면 졸음, 흐린 시야, 입 마름, 배뇨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 등 위험한 기계 조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밖에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환자, 협우각 녹내장 환자는 멀미약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약물에 따라 복용 연령과 용량이 다르므로 사용 전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하대병원 처방 조제 가능 약국

용현동	약손약국	032-884-1886
주안동	라상약국	032-831-6065
도화동	인암종로약국	032-875-0509
주안동	건강드림약국	032-433-5319
용현5동	현대메디칼약국	032-889-1891
송현동	백제약국	032-764-5747
송림동	종로약국	032-766-9301
	보명약국	032-762-3347
구래동	김포도담약국	031-987-5936
선학동	건강백세약국	032-813-2274
연수동	연수태평양약국	032-818-7010
	운누리현대약국	032-831-4822
옥련동	동의당약국	032-834-8274
	신도시약국	032-851-7516
용중동	운누리건강백화점약국	032-545-1535
작전동	우리팜약국	032-551-7535
작전1동	유원약국	032-551-5650
항동7가	유한운누리약국	032-883-2600
운서동	영종태평양약국	032-746-1313
구월1동	이레약국	032-462-1851
구월동	구월메디칼약국	032-424-7425
구월4동	연세프라자약국	032-462-0392
부평6동	행복한운누리약국	032-503-9339
	유피아부평성모	032-505-2035
가좌동	메디팜성모약국	032-576-2028



인하대병원은 환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주간 032-890-3323, 3327, 야간 032-890-3315로 하시면 됩니다. 인하대병원 처방 조제 가능한 협력 약국은 032-890-3323, 33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11



관련자: 사회공헌지원단
 언론사: 인천투데이
 주 제: 녹색기후기금, 인하대병원
 에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2020. 5. 20



관련자: 소화기내과 정석 교수
 언론사: 보건타임즈
 주 제: 내시경 후 췌장염 발생
 위험성 줄이는 시술
 세계 최초 개발

2020. 6. 3



관련자: 소화기내과 고원진 교수
 언론사: 헬스조선
 주 제: 국내 최초 위식도역류
 치료 기기 '스트레타' 구입

2020. 6. 17



참여자: 김영모 병원장
 언론사: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주 제: '2020 의료 질 지표' 평가
 결과 공개 관련 인터뷰

2020. 6. 19



관련자: 암통합지원센터
 언론사: 동아일보
 주 제: 환자 중심 인하대병원, 대장
 암-폐암 분야 '등급'

2020. 7. 9



관련자: 감염관리실
 언론사: 중앙일보
 주 제: 모범 확진자, 코로나 환자도
 살렸다...A형 혈장으로 B형
 치료 최초 개발

2020. 7. 22



참여자: 로봇수술센터
 언론사: 메디파나
 주 제: 로봇수술센터, '환자안전 최우선
 가치로 500례 달성'

2020. 8. 7



관련자: 홍보팀, 사회공헌지원단
 언론사: 청년의사
 주 제: SK와이브스와 6년 연속
 '행복드림 캠페인' 진행

2020. 8. 18



관련자: 국제협력팀
 언론사: 연합뉴스
 주 제: 포스코건설과 해외근로자
 의료지원에 관한 MOU

2020. 8. 19



관련자: 희귀유전질환센터
 언론사: 동아일보
 주 제: 대학제 진료료 '희귀유전질
 환' 환자 돌본다

1 대장암·폐암 치료 '1등급'

인하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적정성 평가에서 이번에도 대장암·폐암 치료 1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2011년부터 심평원이 공개한 모든 평가 회차(대장암 1~7차, 폐암 1~5차)에 걸친 1등급 획득 사례다. 또한 인하대병원은 심평원이 최초 공개한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아 환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

2 코로나19 확진자, 혈장치료 받고 5명 완치

인하대병원 감염내과 이진수 교수팀은 혈액형이 다른 완치자의 혈장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한 사례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인천 지역에서 유일한 코로나19 혈장치료 시행 의료기관이다. 전국적으로도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5개 의료기관만이 혈장치료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인하대병원에서 회복기 혈장치료를 받은 환자 7명 중 5명이 완치판정을 받아 퇴원했고, 사망 환자는 없었다.

3 로봇수술센터, 500례 달성

인하대병원이 로봇수술 시행 1년 7개월 만에 500례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로봇수술은 고화질 영상과 확대된 시야를 통해 1명의 수술의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4개의 초소형 로봇 손을 이용해 수술하는 시스템이다. 환자에게는 안전한 수술환경을 제공하고, 의사에게 육체적 피로를 줄여줘 효율성 높게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로봇수술센터는 외과의 감상선 수술을 중심으로 대장항문 질환 수술, 비뇨의학과 전립선과 신장 수술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기존에 해온 내시경 수술을 로봇수술시스템과 연계해 시행 중이다.

4 희귀질환자들을 응원해주세요!

인하대병원이 '제4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알리며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했다. 희귀질환센터는 퇴원 및 외래진료 수납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며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알렸다. 기념품에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설명하는 영상이 담긴 QR코드 인쇄물을 부착했다. 또한 인하대병원 희귀질환센터는 인천시민을 비롯해 경기 서북부권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인 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과별 유전질환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진료팀을 구성했다.

5 혈액투석 치료평가 4회 연속 1등급

인하대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면서 혈액투석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인하대병원은 종합점수 99.0점(100점 만점)을 기록하면서 심평원이 상위 10% 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가산금도 수령한다. 인하대병원은 혈액투석 전문 의사 비율,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 정기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6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

인하대병원 김영모 의료원장이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희망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에게 응원 문구를 손글씨로 적어 SNS 등 온라인에 게시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행사다. 김영모 원장은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에 동참했으며,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의료진!',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적어 들고 응원과 희망의 마음을 전했다.

7 AI 활용 '비대면 간호서비스' 도입

인하대병원이 ㈜인포마크와 함께 AI와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격리병동 입원환자를 위한 비대면 환자 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 및 5g 통신기기 전문 기업 인포마크가 개발한 10인치 대형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통제·조절된다. 여기에 IoT(의료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단말을 도입해 비대면 스마트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거리에서 환자의 체온과 심박수, 산소포화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적으로 코로나19 치료현장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동에 시스템을 도입하여 간호 인력의 업무 과부하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8 SK와이번스와 '행복드림 캠페인' 진행

인하대병원이 SK와이번스 프로야구단과 여섯 시즌 연속으로 환아를 위한 '행복드림 캠페인'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김영모 인하대병원장과 SK 박종훈, 문승원 선수가 각각 병원과 구장에서 비대면 협약식을 치렀다. 선발투수인 두 선수의 정규시즌 승수에 따라 1승당 100만원(병원 50만원, 선수 50만원)이 적립된다.

9 인천중부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인하대병원은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중부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가정용 강화액 소화기 200개를 기증했다. 기증식은 인하대병원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을 위해 이뤄졌다. 최근 7년간 화재 사망의 55.5%(연평균)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기증 받은 소화기 등은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지역 내 화재취약계층 등에 우선 보급할 예정이다.

10 한국아쿠르트 임직원 마음 모은 헌혈증 도착

인하대병원에 (주)한국아쿠르트 경인지점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헌혈증 74매가 도착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의 여파로 시민들이 헌혈을 기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장 내 캠페인을 펼쳐 헌혈증을 모았다. 현재 국내 혈액 수급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헌혈 참여가 급감했다.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한국아쿠르트 경인지점 임직원이 헌혈 캠페인을 통해 나눔문화 실천을 한 것이다. 인하대병원은 기증받은 헌혈증을 의료현장에서 적시적소에 쓸 예정이다.

진료 안내 (2020년 9월 10일 기준)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가족건강관리, 금연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조세욱	노인의학	
감염내과 ☎2219	이진수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백지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임재형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국제진료센터 ☎2080	김아름	일본내과	
	나정호	뇌신경질환	
뇌신경센터(BNC) ☎2370 2375	신경과 NRNN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배은기	경련, 발작, 의식소실, 불면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통갑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신경외과 NSNN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종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뇌혈관센터 (CBC) ☎3860 3865	신경과 (NRCE)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신경외과 (NSCB)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종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당뇨 & 비만센터 ☎3360, 2215	내분비 내과	홍성빈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김소현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안성희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다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조용인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성하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외과	허윤석	비만, 당뇨, 위수술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가정의학과	이연지	인자행동요법, 체중감량후재발예방	
류마티스내과 ☎2210~1	박 원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권성렬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정경희	관절염, 척추염, 통풍, 자기면역질환	
이승윤	관절염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연구연 2020.4.1~2020.9.30	
	김현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이정심	부인암, 유방암, 특수방사선치료	
	윤상민	종양, 결석, 신이식	
비뇨의학과 ☎2360	이택	전립선, 종양, 결석, 소아	
	류지간	성기능장애, 남성불임,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강동혁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내비뇨기과학	
	정두용	비뇨기종양, 결석, 전립 질환	
김동호	종양학, 복강경		
	이병익	종양학, 불임, 폐경기	
	황성욱	종양학, 복강경	
	최수관	고위험임신, 정밀초음파	
산부인과 ☎2270, 2117	이방현	종양학, 복강경	
	장신아	일반부인과, 부인과내분비학	
	황 건	알코올상 및 골절, 흉터 성형술	
	기세휘	미세수술, 수부외과수술, 하지재건술, 손목재건술, 미용수술	
성형외과 ☎3370	최승석	신경재건, 손목터널증후군, 수부, 당뇨발, 피부양성종양, 흉터, 미용성형, 체형교정, 보톡스 및 필러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소아청소년과 ☎2260	김소기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전용훈	신생아, 미숙아, 발달	
	임대현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김정희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권영세	신경, 뇌전증(간질), 두통	
	이지은	사춘기조숙증, 저신장, 당뇨, 갑상선, 내분비질환, 신경질환	
	김동현	감염, 결핵, 불명열, 특수예방접종, 여행자의학	
	이주영	해외연수 2020.2.20 ~ 2021.2.19	
	김수진	유전성대사질환, 사춘기질환, 저신장, 당뇨병, 갑상선내분비질환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 심질환, 가와사키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소아신장질환	
소화기내과 ☎2224	박지선	소아청소년 내분비학, 소아 성조숙 및 저신장	
	신용운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김형길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이도행	담도-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권계숙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정 석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담도-췌장질환, 위내시경	
	진영주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박지선	소화관, 간, 담도, 췌장질환	
	유정환	간, 소화관,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신경과 ☎3860	고원진	위장관 질환, 소화관 암(위암, 대장암), 식도운동질환, 역류성 식도염, 비만	
	신중범	위· 대장질환, 소화관 암, 소장질환, 영증상정질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중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배은기	경련, 발작, 의식소실, 불면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통갑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김률	파킨슨병, 손떨림, 소뇌질환, 근긴장이상증, 헌팅턴병, 기타 이상 운동 질환, 파킨슨과 관련된 치매, 뇌전증(간질) 질환, 수면질환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신경외과 ☎2370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윤승환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종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류달성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이승우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송준호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황선덕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김기표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클리닉 (KTC)	NHKT	김기표	신장이식
	GSKT	황선덕	신장이식
심뇌재활센터(RMCR) ☎2480	박근명	신장이식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심혈관센터 (CVC) ☎2200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권 준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고혈압	
	김대혁	부정맥,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우성일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시술, 고혈압	
	신성희	심전기,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권성우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심혈관 중재시술	
	박상돈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질환 중재시술	
	백운수	부정맥 심방세동 서맥 빈맥 전극도자절제술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 심질환, 가와사키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소아신장질환	
	문연성	망막, 유리체, 포도막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안과 ☎2400	진희승	망막, 유리체, 백내장	
	강성모	성형안과, 사시	
	김나래	해외연수 2020.3.1 ~ 2021.2.28	
	정지원	백내장, 각막, 외안부, 백내장수술	
	김요셉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정소연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안과레이저	EVSL 레이저클리닉	
	알레르기내과 ☎2217	김철우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영상의학과 ☎2740-3	조순구	중재적 영상의학
		김우철	유방방사선학
외과 ☎2250	신석환	소화기외과, 위암	
	안승익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이건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허윤석	소화기외과, 위	
	최성근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최윤미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신우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박근명	혈관이식외과	
	정성택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유방갑상선 외과센터 (BTC) ☎2560-1	김성목	유방외과	
	박신영	유방, 내분비외과	
	기세휘	유방성형, 유방재건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병	
	김규성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김영호	알레르기비염, 코골이및수면무호흡, 비중격질환, 축농증, 편도질환, 소아이비인후과	
	최정석	타액선 내시경술,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성대) 질환	
	김현지	어지럼, 난청, 중이염, 이명, 보청기	
	김지연	피타 편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이비인후과,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임상약리학과 ☎1167	김철우	임상약리/약동분석
조상헌		임상약리/약동분석	
재활의학과 ☎2480-1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김창환	근골격계통증(요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정신건강의학과 ☎3880	박찬혁	뇌신경재활, 일반재활	
	김은석	근골격계질환, 허리통증, 목과 어깨 통증, 무릎통증	
	이정성	ADHD 틱장애, 학습주의력언어	
	배재남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정신장애	
	김혜영	기분장애(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정신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 자살예방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병	
	맹세리	성인, 소아 정신건강	
	손자성	소아청소년정신과	
	문경호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김명구	슬관절(인공관절, 퇴행성관절염, 스포츠손상)	
정형외과 ☎2380	강준순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 치환술, 관절염, 종양, 골다공증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이동주	상지, 수부, 종양, 관절염	
	김범수	족부, 족관절, 외상	
권대규	소아정형, 뇌성마비, 종양, 외상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직업환경의학과 ☎2861	전윤상	어깨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치환술,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어깨 탈구 및 스포츠 손상), 주관절, 슬관절		
	류동진	슬관절(무릎), 무릎 스포츠 손상(전방십자인대, 반월상 연골), 교정 절골술, 하지 외상		
	임종환	환경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압제		
	박신구	직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보건관리		
	김환철	뇌, 심혈관질환 평가 및 관리,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이상윤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평가		
	척추센터 (SCC) ☎2619	정형외과(OSSC)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신경외과 (NSSC)	윤승환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척추종양
		재활의학과(RMSC)	류달성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척추종양
	치과 ☎2470	오남식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조현영		구강외과		
최진호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클리닉		
최지영		교정과		
통증센터 ☎3921	김소현	통합치과학과		
	김병건	통증치료		
폐암센터 ☎3890	김나은	통증치료		
	류정선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남태현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윤용한	폐종양		
피부과 ☎2230	김영삼	폐종양		
	최광성	모발, 모발이식, 조각질환		
	신정현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알러지, 백반증, 기타자기면역 피부질환, 여드름, 흉조		
	변지연	여드름, 피부노화, 피부양성종양, 피부미용외과, 피부과 전반적인질환		
해이학과 ☎3160	신현태	유전성피부질환, 소아피부질환, 항암제 피부부작용		
	현인영	동원위소치료		
혈관외과 ☎2166	이민경	동원위소치료		
	외과(GSVC)	박근명	혈관이식외과	
		김지희	혈관이식외과	
	흉부외과 (CSVC)	백민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김정택		심장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혈액종양내과 ☎2199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완화의료		
	임주환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하해림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호흡기내과 ☎2216, 2217	박지선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김진철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이홍렬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곽승민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호흡기내과 ☎2216, 2217	류정선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남해성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김정수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박미화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 의학		
흉부외과 ☎2280	임준혁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의학		
	백민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김정택	심장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윤용한	폐, 중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희귀유전 질환센터	김영삼	폐, 중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흉부외상		
	강철웅	심장, 혈관질환		
	권영세	소아신경, 뇌전증		
	이지은	소아내분비, 유전 및 유전성 대사질환		
성형외과 ☎3370	김수진	류코다당증, 누낭중후군, 프라다-윌리엄스후군, 앤젤만중후군, 터너중후군, 유전성대사질환		
	최석진	말초신경병증,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정한영	발달지연, 근육병, 뇌성마비		
	문연숙	세포유전		

• 대표전화 1600 - 8114 (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 890 - 2000 • 가정간호사업실 (032) 890 - 3590
 • 종합검진센터 (032) 890 - 3331 • 입통합지원센터 (032) 890 - 3600 • 진료협력센터 (032) 890 - 3302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위암	소화기내과	신용운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김형길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식도암,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변비 고원진 위암, 염증성 장질환 허윤석 위암, 소화성 궤양, 위기질성종양, 비만수술, 복강경 수술 최윤석 위장관 외과
	외과	이문희 위암, 식도암, 대장암 임주한 위암, 식도암, 대장암, 기타 고형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혈액종양내과	김한정 위암, 식도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병리과	신용운 대장암, 위암, 역류성 식도염 김형길 대장암,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식도암,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변비 고원진 대장암, 위암, 위, 대장 질환
	대장암	최선근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정성택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대장항문질환
대장암	외과	이문희 대장암, 위암, 유방암, 부인암 임주한 대장암, 위암, 육종, 기타 고형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혈액종양내과	김우철 연구연 2020.4.1~2020.9.30
	방사선종양학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병리과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진영주 간질환, 간암, 만성 B형, C형 간염 유정환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소화기내과	안승익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이건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신우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외과	간암,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항암화학요법, 비뇨기암, 뇌척추종양
간암	혈액종양내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연구연 2020.4.1~2020.9.30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및 간병리
	소화기내과	이돈행 췌장암,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치료내시경 정석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담석질환
	외과	박진석 췌장암, 담도, 췌장질환, 간질환, 치료내시경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이건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신우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췌장암, 담도암, 항암화학요법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췌담도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췌장암, 소화기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소화기내과	이흥렬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곽승민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류정선 폐암, 폐결절, 표적치료, 폐암 조기검진, 늑막염, 면역치료 남해성 폐암의 진단과 치료, 폐암 맞춤치료,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외과	윤용한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김영삼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폐암, 유방암, 부인암, 위암, 식도암, 대장암, 췌담도암 조진현 폐암, 흉선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폐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연구연 2020.4.1~2020.9.30
	병리과	김루시아 폐병리
	소화기내과	조진현 혈액암,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박지선 혈액암, 혈액질환, 완화의료
	혈액종양내과	이정심 혈액암, 육종, 유방암, 부인암, 뇌척추종양
	방사선종양학과	최석진 혈액림프관내계 병리
	병리과	홍성빈 갑상선암, 부신종양, 갈색세포종 김소현 갑상선, 내분비, 당뇨 안성희 갑상선, 부신, 기타 내분비질환 서다혜 갑상선, 당뇨, 기타 내분비 질환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이진욱 갑상선암 및 양성질환, 로봇수술, 구강내시경 수술, 유방 양성질환
	외과	최정석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김지원 갑상선암, 후두암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이비인후과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갑상선암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갑상선암 및 두경부암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갑상선암, 두경부암, 부인암, 유방암
	핵의학과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종양핵의학 이민경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분자영상의학
	외과	이진욱 연구연 2020.4.1~2020.9.30 임성목 유방외과 박신영 유방암, 유방질환
	성형외과	기세휘 유방재건, 유방성형, 피부암
	유방암	이문희 유방암, 부인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유방암	혈액종양내과	김한정 유방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이정심 유방암, 부인암, 두경부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유방암, 부인암, 두경부암
	병리과	박인서 유방병리
	신부인과	김동호 자궁경부암, 난소 종양, 자궁체부암 이병익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생식 내분비(불임, 폐경) 황성욱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복강경 수술 이방현 부인종양학(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이외 신부인과 종양)
	부인암	이문희 자궁암, 난소암, 희귀암, 유방암 임주한 부인암, 두경부암, 위암, 대장암, 간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혈액종양내과	이정심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유방암
비뇨기암	병리과	최석진 신부인과병리
	비뇨의학과	윤상민 중앙, 결석 이택 배뇨장애, 전립선질환, 중앙, 소아 강동혁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신이식, 내비뇨기과학 정두용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임주한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방사선종양학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병리과	김한정 전립선, 방광암, 신장암, 신우요관암
	병리과	한지영 비뇨기병리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최정석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김지원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후두암, 침샘종양, 경부종양
	성형외과	기세휘 조직재건, 유방재건, 피부암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구강암, 편도 및 인두두암, 위암, 식도암 조진현 구강암, 편도 및 인두두암, 폐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하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병리과	이정심 비인두암, 구인두암, 구강암
	병리과	박인서 두경부병리
피부암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징애, 수면장애, 우울증
	재활의학과	김명욱 암재활 - 림프부종
	피부과	변지원 피부암, 혈관종양 및 혈관기형 질환, 피부레이저 클리닉 최광성 항암제 피부 부작용, 건선, 조갑질환, 탈모, 모발이식 신정현 항암제 피부 부작용, 색소질환, 흉조, 피부병리
	성형외과	기세휘 피부암, 유방재건, 유방성형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피부암, 희귀암, 유방암, 부인암 임주한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기타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뇌척추종양	병리과	김루시아 병리학
	신경외과	김은영 뇌종양, 뇌하수체종양, 두개기저부종양, 소아뇌종양 박현선 사이베나이프 - 뇌종양, 뇌전야암, 두경부암, 두개기저부 종양 윤승환 척추종양, 척추 변형 수술,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류달성 척추종양,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뇌척추종양, 두경부암, 소화기암, 비뇨기암, 희귀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뇌종양, 뇌전야암, 척추종양, 육종, 두경부암, 유방암
	병리과	박인서 병리학
	정형외과	강준순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이동주 골육종, 연골육종, 손 저림, 손가락 통증, 상지 신경 수술 권대규 골육종(18세 이하), 족부 족관절 질환
근골격종양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조진현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내 손안의 스마트병원

인하대병원 모바일앱

My 인하

OPEN

오전 9:08 87%
인하대병원 INHA UNIV. HOSPITAL
입원 건강검진 안내

의료진찾기 간편예약
진료예약조회 진료시간표
대리결제 건강수첩
전자처방전달

사용 문의 1661-7551
나 중구 인항로 27 (신흥동 3가 7-206)
T-890-2114 (개인정보처리방침)

인하대병원

아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문상담원이 빠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전문보기

010-0000-0000

다른 방식의 예약을
원하시나요?

인하대병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특
의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료과 검색
진료과명 또는 질환명 검색

나의차트를 통해 예약현황, 진료
기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인하대병원 검색

※개선 기능은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 진료예약**
어디서든 간편하게
진료예약 가능
- 진료비결제**
대기없이 간편하게
병원비 결제
- 진료대기순서**
대기 순서 알림으로
기다림 없이 진료
- 진료예약조회**
예약한 진료일정을
간편하게 조회 가능
- 내일정**
병원스케줄을
한눈에 확인 가능
- 실손보험청구**
복잡한 신청서류 없이
실손보험 즉시 청구
- 전자처방전달**
종이 처방전 없이
간편하게 전자처방 전달
- 건강수첩**
기본적인 건강관리
(혈압, 혈당, 체질량)